朝鮮日報
夕刊
本紙特刊號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英國의尨大한 擴大되는列强의軍備!

空軍豫算發表에 米、建艦計劃數字公表

現在建造中艦船七十六隻 一年內廿四隻起工

【倫敦華盛頓六日發】英國의尨大한海軍豫算案發表와同時에米國海軍當局은 六日目下進行中의建艦計劃에關한數字를 公表하엿다 此에依하면米國海軍當局은 昨年부터開始된建艦五個年計劃에 基하야今後四個年以內에 條約制限艦을完了하려는데 現在建造中의七十六隻外에다시 一個年內에二十四隻의 起工에着手하기로되엿다 그러나 一九三六年의 建艦計劃을 마치는때도 條約制限에서는아즉도 七十八隻이 不足되다 그리고 海軍省의 計算으로는 五個年間의總費用은 約十五億弗의巨額에達할計算이다 그리고 루―즈벨트大統領은 六日新聞記者와의會見에서 英國은 米國이建艦計劃에對抗하기爲하야 空軍艦隊를建造中이라는報道가잇는데 어떠케생각하는가하고質問한데對하야 그런말은 드른일이업다 如何를調査하여 보겟다라고答하엿다

英國海軍豫算 六千萬圓增加

【倫敦六日發聯合】一九三五、六年度의 英國海軍豫算은 六日議會에 提出되엿는데 最近英國海軍力의 不足에 不論의聲이 노픈 此際에 新豫算은 依然今年度에 比하야 三百五十萬磅(五千九百五十萬圓)의 增加를示하고 總額六千五百萬磅(約十一億二千百萬圓)의巨額에 達하엿스므로 此에伴하야 海軍兵員增加의 新豫算은 今年度 經費에 二千名增加를示하야 總數九萬五千二百二十名으로되여잇다 右增加額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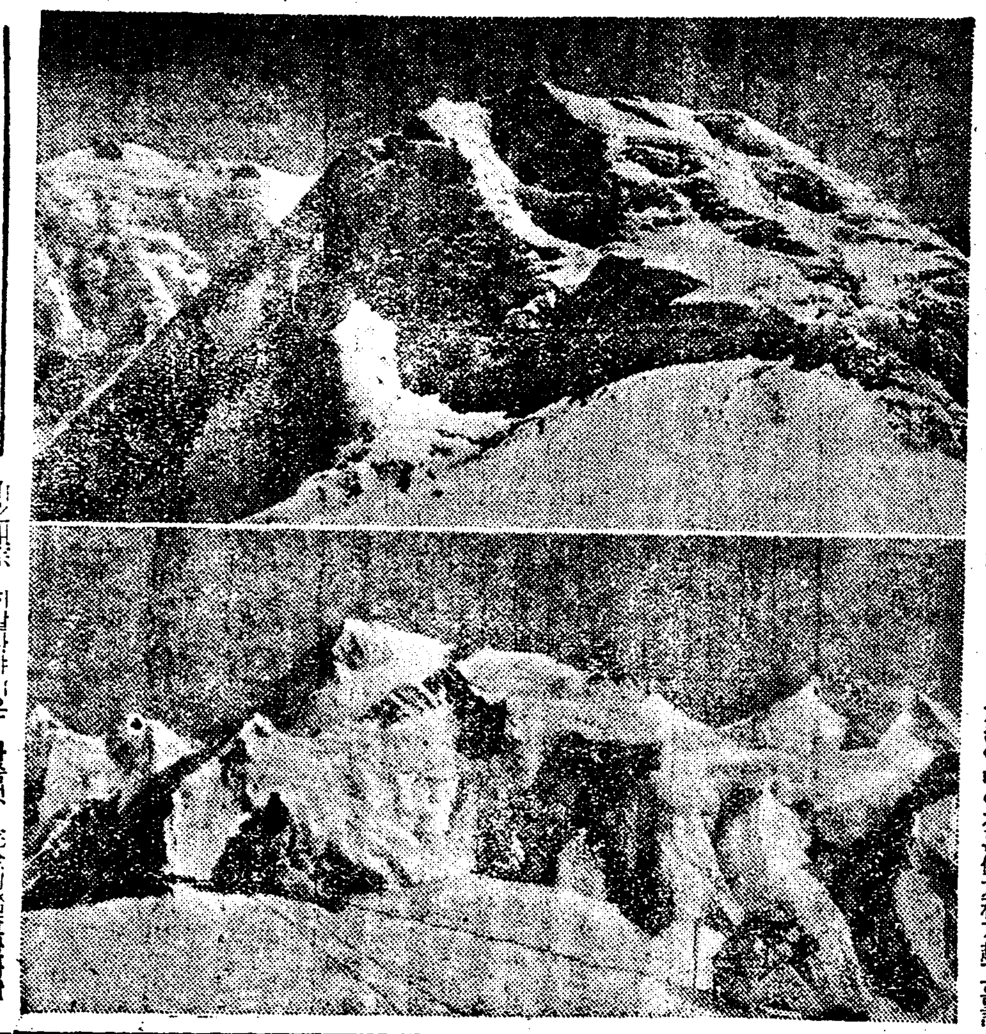
一、艦隊維持費 二百十五萬三千六百磅 (四千三百四十一萬圓)
一、艦隊空軍整備費 五千三萬五十磅 (八百十萬圓)
一、建艦費 二十四萬五千百九十六磅 (四百十七萬圓)

이 計上되여잇다

經費十億法으로 佛政府建艦計畫

伊太利建艦起工에對抗코저 下院에計畫案提出

【巴里六日發】佛國政府는六日下院에建艦案을提出하엿다右는
一、今年末까지에戰鬪艦一隻及一萬七千噸級의 大型驅逐艦一隻을建造할것
一、一九三七年度에다시第二의戰鬪艦一隻을建造할것
右經費로十億法을支出할것
을要綱으로한것인데 右提案에는 戰鬪艦二隻모다噸數를 明示하지안코後日更訂할수잇는餘裕를가지게하엿다 이것은伊太利가起工을言明한三萬五千噸級의戰鬪艦二隻의 實際建造狀況에對하는意味로伸縮性을與해두는것으로 解釋되는同時에佛國은一九三七年以前에三萬五千噸級의艦을 二隻建造하는것은



히말라야上上峰征服!

으로組織된 히말라야山國際登山隊에依하야 王峰(二五、五〇九呎)과 黃金冠峰(二三、七八七呎)으로일즉이 世上에알려진諸峰中가장노픈峰이다 山之嗣宗 히말라야山은 아즉것 完全히踏査한사람이업고 다만 世人에게神秘의 仙境으로만알려잇던中얼마前에 兩瑞地理學者 듸렌퍼―스敎授를 中心으로 比較的完全히踏査되엿다 寫眞은 히말라야山마려女

日本反對에不拘코 英米援助는甘受

中國主權不侵害範圍의援助라면 國府外交當局의言明

【南京發】英米兩國의對中經濟援助設이擡頭함에 倫敦에서 傳하고잇는것은 日中接近機運에對한英米의 焦燥를如實히表現하는것으로 보고잇는데이만큼 即英米에서온報道는日中提携가實現될때에 日本의對中援助로中國의 政治、經濟上의地位가動搖하는것을 極度로憂慮하야九國條約을 방패로今後日本의對中行動을中止시키고또英米가將來에對한對中發言權을保留한重大性이包含되여잇서 마치日本을 除外한對中經濟援助의國際銀行團의成立에反對한日本의天羽聲明을今回英米가日本에對하야行한것이다 同時에最近의日中關係를猜疑하는 英米가日中의態度를알려고하는 한探查라고도할수잇다 右에關하야 南京英米駐中官憲當局은 本國政府의命을밧고가만이中國側에探查의손을 뻐치고잇다고傳한다。國民政府에서는 目下沈默을지키고잇스나 英米兩國이中國의 主權을侵害하지안는範圍內에서經濟援助를 해준다면如何한日本反對가잇더라도 그것을 기뻐게受諾할旨를 五日中國外交當局은 記者의質問에答하엿다。中國側의日中關係의 緩和가歐米의對中援助를 求하려는것인지아닌지를判斷하는것이 日本에게가장緊要한일일것이다

有吉公使南京着 午後汪氏와重要會談

【電通南京七日發】有吉公使는七日午前七時南京着列車로入京直時日本總領事館에入하엿다 午前은須磨總領事其他와現地情勢를聽하고午後三時汪精衛氏를 訪問하고日中關係好轉後의 最初의重要會談을行하기로되엇는데右는自然一千萬磅크레딧트에도 觸할것으로會談의內容은極히重視된다

話題解說 對中크레딧트

◇最近日中經濟提携의氣色이 濃厚하게되자 英米兩國이 突然「中國의 財政的救援은 何國이든지單獨으로할것이아니라 國際借款團을組織하야 各國이合力援助할이조타」는 意見을發表하는同時에 方今華盛頓에서駐米中國公使와 몰겐스國務次官間에 어느程度까지交涉이進行되는中이라고도한다。此報에接한 日本外務當局은「列國의對中援助는 中國을植民地化할念慮가 不無하다」하야共同借款案을絶對反對하고잇다。

◇이問題가 어떠케解決될지우는 지는아즉 알수업는일이오、누구나檢斷者 不許하는바어니와所謂對中共同 借款이라든가對中「크레딧트」라함은무슨意味인가、오늘은借款或은 크레딧트에對하야 簡單히解釋을하여보라한다。借款이라함은 貸借關係를말함이니 個人에게도適用하여서 못할文字는아니겟지만은普通으로는國家와國家間에使用하는用語이다。國際借款은財政窮乏한 中國을利用하려는 借款도現在英米佛伊等各國을 [illegible] 通하야업는나라가업다。「크레딧트」라함은 年前日本에서金解禁을斷行할때에 마히使用된文句로서 原語는(Credit)即信用이라는意味이니 「크레딧트」設定이라함은곳信用設定이라는말이다。다시말하면 一國(又는一國內의銀行會社)이 財政的危機를當하고그것을防止하기爲하야他國(又는他國內의銀行會社)과[illegible]信用設定을하는것인데 實際信用하는일은 [illegible]必要한場合에使用하게는 도잇지만은、必要한境遇에使用하겟다는 契約만을하여두는일도잇다。

◇이번中國의境遇는 銀市場의變動으로 財政的危機에 直面하얏슴으로 中國自體로보아서도「크레딧트」設定을必要가 잇슬줄아는것도事實이나이「크레딧트」問題를가지고 列國이目前日本을말하는동안까지는 그解決은何等만할수는업슬것이다

議會態度惡化에 米政府苦境陷入!

四十八億弗의失業救濟費難關에逢着 루大統領威信墮落

【紐育發】四日로서 루즈벨트大統領의在職는 滿二個年이되어「뉴―딜」은二年人재를 맛게되엿는데 昨年秋의總選擧에서 現政府는國民의壓倒的支持를 어덧슴도不拘하고最近의 空氣로보면 國民의心理狀態는絶對에가까운 루즈벨트禮讚으로부터 漸次批判的으로變해가는모양으로 이것은單히今後의 內的經濟政策上에서뿐만아니라米國과가튼 輿論力이큰나라로서는對外政策上으로도 注意할바이라고한다 이變化의原因이되고잇는것은 年初부터大審院을爲始하야裁判所가「뉴딜」에對하야容赦업는審判을加하고잇는것과議會의一部에反政府의態度가漸次增加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의 뜻대로아니되게된것이다、裁判所關係의「뉴딜」批判은 金約款判決에서보던 그대로이나 지금最近議會의變化된양을들면 如左한것으로特히民主黨內部에까지 現政府의反對派가 增加하고잇는것은 注目을끄을고잇다 民主黨은 兩院의三分之二以上의多數를占하면서 國際裁判所에加入問題에서는 外交委員會의可決한것으로 本會議에서는三分之二의 投票를獲得하지못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의 對議會는첫번의顚跌을보엿는데지금에는 四十八億弗의失業救濟事業費가 非常한難關에逢着하고잇다 政府側은이事業이民間事業을壓迫하지안토록 賃金은一般보다安價로 豫想하고잇는데上院은大統領의意思에 反하야賃金을一般과가티하라는맥카란修正案을 四十四對四十三으로可決해버럿다。이것은 本計畫을根本的으로 變更하는것이므로大統領은 目下民主黨幹部와 협議를하고잇으나 이에對하야는 民主黨의反對가잇슨데多數의民主黨員도 루즈벨트大統領의本案을撤回하야 約五十億弗의巨大한 要用의用途에[illegible]되게하지안코、또한使用法에對하야 [illegible] 생기것을조하고잇다 또四日부터 下院委員會에서大統領의 反對派는 二十一億弗의現金支拂을行하려는 軍人恩給法案의 審議가 열엿는데 不利하고 其他下院을通過한法案 軍人增加를 루즈벨트大統領에게 [illegible]

히틀러病은 外交病!

巴里各紙論評

【巴里六日發聯合】히틀러總統이 突然身病을理由로 英國代表의訪問을拒否한데對하야 巴里各紙는 六日紙上에一齊히論評을揭載하고 그結論으로 히틀러總統의病은外交病이라고하고 맥드날드首相이發表한 英帝國國防의必要에 關한覺書에對해서는이것은 宣戰한宣言이라고 認定하고잇다

十九、二十兩師團 師團長更迭內定

【東京電話聯合】六日內定한陸軍異動에서 中華民國公使館附武官鈴木美通中將은 第十九師團長에 陸軍運輸部長三宅光治中將은 第二十師團長에補하기로되엿다

政府軍對叛軍 最後的決戰切迫

革命軍鎭壓은時間的問題라고 希臘首相國民에聲明

【電通아덴스六日發】東마케도니아에서의 政府軍과叛軍과의決戰은 이제 目捷間에切迫하엿는데 希臘首相찰다리스氏는 六日「叛軍과의決戰이 政府軍의勝利에歸할것은 明白하다」고全國民에게聲明하엿다

政府軍絶對優勢 希臘首相의聲明

【아덴스六日發聯合】希臘首相찰다리스氏는六日聲明書를發表하야 叛亂鎭定은在邇하다는旨를 確言하엿다 聲明書要旨는如左하다 無濟思慮의叛徒로因하야 一時希臘國內는擾亂의巷으로 化하엿는데 政府의討伐工作은着着奏効하야이제는 最後의決定的段階에達하엿다 政府軍의勝利는 絶對確實한것을나는여긔에 躊躇업시斷言한다

叛軍總師等 財產沒收

【아덴스六日發聯合】希臘政府는 叛軍의討伐을進行하는同時에叛徒의徒黨을處罰하고 其財產을沒收하기로 決定하야 六日叛軍의巨頭베니젤로스前首相及同氏의令孃의財產을沒收하엿다

불가리아國 最高軍事會議

발칸半島에暗雲低迷

【電通소피아六日發】불가리아王보리스三世陛下는 六日王宮에最高軍事會議를召集하고 重要協議를遂하엿는데 右는希臘反亂의隙에乘하야 土耳古軍이事를構하야 불가리아國境을 進擊하든지或은希臘政府軍應援의擧에 出하든지또는一擧에 國境進擊과希臘政府軍援助의兩者에 出할憂慮가잇서 이에備하기爲한 軍備工作에關한重要軍事會議이엇다고 確聞되다 이리하야 발칸地方은再次暗雲이低迷하려고한다

政府眞相公表는 軍機上不可能?

首相中心의四十五萬圓問題

【電通東京電話】岡田首相을中心으로하는 四十五萬圓의綱紀問題에對해서는 五日의衆議院本會議에서 津雲國利氏의質問에 對하야 六日正午에는該問題의中心人物인 三浦元代議士가岡田首相을訪問하고 對話談判을하는等問題는더욱더욱紛糾를 繼續하게되엇다 岡田首相은곳까지三浦氏와本問題에對하야 開答한事實이업다고하는데 政友會의一部와國民同盟은 右言明에關한 首相의說明에 滿足하지안흠으로 今後相當히 問題가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首相과首相側近者는 目下眞相을調査中이므로 眞相判明을 기다려 疑惑一掃에努力하려고하는데 事件이軍機에觸하고잇는것이니만큼政府側으로서도 그眞相을公表할수는업슬것으로 그權利에對해서는자못苦慮하고잇는模樣이다

奉天見聞記

天運이循環하듯 國家興亡도輪廻

⑩ 徐椿

記錄에 依하면 淸朝時代에는 祭典의 일은 禮部專司라는것이잇서서 마려 보앗는데、祭祀의 典禮는 一年에 설혼번(三十次)이나 잇섯다고한다。即、每月 一日、十五日의 兩日에、此를 行하는데、이것이 一年十二個月을 通하야 二十四次 잇고、그밧게 一年에 六大祭가 잇는데、第一은 淸明節、第二는 七月十五日、第三은 冬至節、第四는 歲暮節、即、臘月二十九日、第五는 太宗皇帝崩御의 忌辰、即、八月九日 第六은 文端皇后崩御의 忌辰、即、四月十七日에 行한다고한다。

그러던것이 淸朝滅亡後、張氏時代에 와서는 昭陵은 一時、內外國人이 自由로 出入할수잇는 公園化하엿섯다。따라서 張氏時代의 昭陵은 單純한 昭陵이 아니요、『昭陵公園』이엇섯다。그러던것이 今番、滿洲國成立後、康德皇帝가 登極하시면서、『昭陵公園』으로부터 公園二字를 떼여 버리고 다시 昭陵이라고하며、守衛隊를 두어 陵內警備의 任에 當케하며、또한 內外國人에 參拜를許하되 此를 有料制로 하여 陵寢으로 通한 길을 막어서 墓의 頂上에는 百姓의 발자취가 못가도록 만드럿다고한다。

누구나 알바와가치 滿洲國의 現康德皇帝는 淸朝의 最終皇帝이신 宣統皇帝이시엿다。그러니까、이 昭陵에 모신 太宗文皇帝의 後孫이시다。우리는 이것을 볼때에 康德皇帝의 先祖崇拜의 마음이 至極하시다는것을 알수가잇는同時에、잘난 先祖는 반드시 잘난 後孫을기다려서야만 顯彰한다는 理致를깨다를수가 잇다。同時에 우리는 天運이循環에 國家興亡은 쇠고리(環)가티는 느낌을禁할수가 업시되다。

◇求景을 마치고 도로 나와서 門前에 세워 노앗던 馬車를 타고、新定コ―스대로 奉天城內로 向하얏다。우리 말로는 城內라고하나、그나라사람들의말로하면 城裏라고하는 모양이엇다。中路에 잇는 陪都重鎭이라는 門을 지나 가지고、小西門前에 當到햇다。門前에서 城壁을 바라보니、倍히는 서울城壁의 約倍半이나 될만한데、다만 이城은 朝鮮에서 보는 城壁모양으로 돌로 쌋은것이 아니요、全部、灰色벽돌로 쌋은 城壁이다。이것을 보고、나는 天惠가 드문나라에서는 天惠物에 대신할 物件을 人工으로 發明한다는 理致를 또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깨닷게 되엿다。奉天一帶에 旅行한 이면 누구나、朝鮮서 가든면 돌을 쓸만한데、全部、벽돌을 쓴것이 눈에 띄엿슬것이다。城壁도 돌로 되엿고、官廳、民家의建物도 全部、벽돌로 되거니와、一般住宅들은 帝王의 威力을가지고 지여노흔 昭陵의 諸建物과 밋城壁도 全部、벽돌로되여잇다。벽돌은 무엇이냐 하면 흙을 구어 만든것이다。天惠의 물唯一한 材料로 하야 그것을

이 업스니까、흙을 가지고 돌을 代身할만한 物件을 만들기에 全精力을 傾注할수밧게 업다。그結果로 벽돌이라는 物件이 發明된것이다。이것을 보면 只今은 全世界를 征服하다싶히 하고잇는 벽돌과 밋 쎄멘트는 그沿革을 仔細히 살펴보지안코라도、그것이、돌이 업는 나라 사람들의 發明品인것은 斟酌할수가 잇슬것이다。勿論、처음、發明한 理由와 오늘날 世界的으로 普遍히 쓰우는 理由와는 갈나생각할 必要가 잇슬것이다。發明은 天惠의 不足을 補足하기 爲해서 되것이요、今日에 와서 널히 쓰우는것은 勝者가 돌보다 갑이 歇하야 經濟的이기때문이다。

부처말하거니와 大陸가나라사람들은 흙을 가지고、벽돌만이 아니라、부리는 사람들이다。朝鮮에서도 와잇는 中國사람들이 石炭과 진흙을 半半 석거 가지고、燃料를 만든다。世界를 널히 도라단닐때 쓰는것을 보거니와、수唯一한 材料로 하야 燃料를 만드는

기 사람들은 肥料까지도 흙으로 만드러 使用한다고한다。흙을파다가 適當한 方法으로 뒤적거리여서 석커 노흐면 그것이 곳 肥料가 된다고한다。『必要는 發明을 낫는다』는것은 이런것을 두고 한말이다。

이러케 생각해보면 古來로 朝鮮에 世界를 놀낼만한 發明이 적은것은 우리民族은 너무 天惠가 만헛든까닭이다。一例를 들면 朝鮮에는 雨天이 적어 雨具가 發達되지 못햇다。이것은 朝鮮사람이 雨具 發明에 鈍햇던까닭이 아니라、天晴日 高한 天惠를 가진 地域에는 雨具의 必要가 別로 업섯기 때문이다。

日本內地를 보지안코는 朝鮮은 天氣의 惠澤이 만흔 地域인것을 모를것이다。奉天一帶와가튼 黃土平野를 보지안코는 朝鮮은 山水樹木의 惠澤이 豐富한 地域인것을 모른다。世界를 널히 도라단닐 必要는 이때문에 잇다。(續)

人事·集會

◆再鋼鐵氏(實業專修學校理事)次弟鋼謙君三月十一日下午四時市內國一館에서結婚式擧行

八面鋒

◇太平洋건너 米洲의少年들이零細한돈을모아 二萬五千圓의大金을 梨花幼稚園에寄附。

◇고맙다할가 놀납다할가、어린이의일이니 功利를떠낫슴이더욱 아름답다할가。

◇市內十八普校의 志願者 六日까지 六千八百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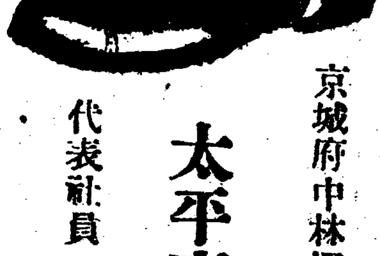
◇定員보다 三千名이 超過라니 이兒孩들은 어데가서 배우라는말인가?

◇해마다 봄마다 잇는悲劇이라 고例事로 알어두어 조흘것인가。

◇잘되고 못되고는 가르친뒤의일、먼저가르칠方法은 當局이나 잇스어나 할께힐옹엉。

新案特許

特製 開明 KAIMEI 太平靴



本品의特長
一、여름에발덥지아니한것
一、겨울에발차지아니한것
一、경편하고、견고한것
一、모양잇고、갑이싼것

昭和十年二月二十日
京城府中林洞一五〇番地
合資會社 太平商工會社
代表社員 安永煥

▲緊急警告

弊社의製造販賣하는『太平靴』(皮線朝鮮靴)는昭和九年新案特許公告第一六五四二號에 恭한物品으로 弊社에서 年來로 全生命을다하야 苦心研究하고 宣傳販賣한結果『太平靴』의聲價를 一般各位의熟知하는바이외다 最近에至하야 前記『太平靴』의賣行이日益旺盛함에 至함을見하고 京鄕同業者間에 類似品을濫造販賣함으로 弊社의 直接間接으로 蒙하는損害가莫大함은 勿論이오 善意로 取引하시는販賣店各位에게도 多大한迷惑을 掛케함은 實로遺憾으로 思하는바이외다 此際에 模造品 製造業者各位에게 謹告하오니 今後特許權侵害로 因하야不祥事가生치안이하기를務望하오며 特히 各地販賣店各位에게 眞正한 新案特許權이有한 弊社製品을 一層聲援하심을懇望하나이다 玆에各位參考에 供키爲하야 新案特許權侵害者에게 科하는制裁法文을 列記하오니參考하심을要함

一、實用新案法第二十七條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ハ三年以下ノ懲役又ハ三千圓以下ノ罰金ニ處ス
一、他人ノ登錄實用新案ニ係ル物品ト同一ノ物品ヲ業トシテ製作使用販賣又ハ擴布シタル者
一、他人ノ登錄實用新案ニ係ル物品ト類似ノ物品ヲ業トシテ製作使用擴布シタル者

計畫移民보다自由移民

移民會社는金融本位

最近에激增한自由移民들의渡滿과

當局의大移民事業方針決定

조선인만주이민계획에대하야는 방금전중(田中)외사과장이동경에 가서 중앙당국자와협의중이라는 데 이민회사는자본금 이오천만원 이니 삼천만원이니 떠들엇스나결 국일이천만원의 회사로 락착될모 양으로 회사의 사업도이민사업의 경영보다 여긔에대한 농경(農耕) 자금의 대부등을 중심으로한말하 자면이민금융회사의 성질을 띄이 게될것이라한다

이와가치 이민회사의 성질이달러 지게된것은총독부의이민정책이계 획이민정책으로부터자유이민의알 선보도책으로전환하게된때문이다최 근조선으로부터 만주각지에 자유 이민으로 건너가는자는 격증하야 봉천(奉天)역에서 보면 조선사람 처지가리보이어 영구(營口)철령 (鐵嶺)하동(河東)등지의 안전 농 촌에는 자유이민이 살도하야현재 의농촌수용력으로는 도저히 이와 가튼 자유이민을 수용할수업슴으 로 이것의처치가 곤난하게되는상 태이라한다

그럼으로 일부러 돈을 만히드리 고 선전을 하야이민을 모집할필 요가업시 자유이민을 적당히알 선하야그들을총독부의 안전농촌 에수용하도록 하는것이 이민의선 책으로도 조타는것이다 계획적이 민에 의한이주민은 너무총독부나 회사에의뢰하는일이 만흐나자력 으로자유로 이주한소위 자유이민 은이주후에도 역시자력으로 성공 하려함으로 이민정책상도매우 조 흔것임은 물론대규모의 이민회사 의창립에 대하야는 대장성당국의 승인도곤난한 상태라하야 결국총 독부의이민정책은 이민에대한 금 융을하는 이민금융회사를 창립하 여가지고계획이민보다도자유이민 의알선보도에중심을두게된것이라 한다

千五百自由移民

營口農場에雲集

當局과何等連絡도업시와서

農場當局處置에頭痛

총독부외사과영구(營口)파견원고 도(高島)촉탁은 오일저녁에 영구 농촌이민문제를 협의하고저 입경 하엿는데 그의말에의하면 최근영 구농촌에수용하여달라고당국과는 아모런락도업시영구로이주하여온 소위 자유이민이 실로삼백호일천 오백명의 다수에달하야 그처치에 극히 곤난하다한다 그럼으로할수 업시농촌에 팔십호영구시내에 일 백오십호를 수용하고 그외의칠십 호는 영구상류묘하(遼河)류역에 수용하엿스나 그들은 전연편락업 시가기때문에 생도가 막연한상태 라한다

영구농촌은 현재 수용능력에 조금도 여유가업서 작년말에이주 한삼남리재민중에서도 약백호는 북만으로 다시이주식힐 계획을 하엿스나 북만후보지의관계로 그 것조차중지되야 현재에는 어쩔수 업는 상태라한다 그러기에 자유 이민도 어느정도까지 미리당국자 와 협력하여가지고 도만(渡滿)하여야 지 가기만하면될줄알고 함부로도 만하는것은경계할필요가잇다

名古屋高工全燒

【名古屋電話聯合】 칠일밤두시삼 십분경 명고옥시중구어기소정(名古 屋市中區御器所町) 명고옥고등공업 학교 전부판건축과(建築科)로부 터 불이나서 목조이층판두채를 전부태우고 네시반에 진화하엿는 데 손해는약오십만원가량이고 원 인은 아직상세치안흐나 화로불을 잘못처치한데서난듯하다한다

同宿客은窃盜

시내종로(鍾路)오정목일백팔십구 번지일성려관(日成旅館)에 강원도 회천군(淮川郡)에사는한재천(韓 在天)(二七)이라는손님이 인천부중 강정(仁川府中國町)일백삼십오번 지실직한운전수김복명(金福命)(二七)이라자와 한방에투숙하고 잇던 바 칠일아츰에전긔 한재천이 가잘 을깨여보니까 자긔가 가지고잇던 현금일백십원을 훔처가지고 전긔 김복명이가 어데론지 종적을감추 고맙엇는데 이급보를접한 소관동 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즉시각서 에수배하야 범인을 엄탐중이다

본맛난梨園에□□

激烈한俳優爭奪是非

黃金座中堅俳優大量脫退로

警察에까지善後呼訴

아직근거가 안정되지아니한 미약 한 조선흥행계(興行界)의 가지가 지 고통중에서도 무시로잇는배우 의이동은 가장큰고통의씨가 되여 잇거니와 더욱히흥행중의 배우이 동은 흥행주뿐아니라 나아가서는 관객에게까지 적지안흔 영향이잇 서 가뜩이나 불안정한흥행계에일 대암영이 되여잇서서 취체당국에 서는 일체이를 방지할방침을세웟 다함은 루차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이제도다시방금인사동(仁寺洞)조 선극장(朝鮮劇場)에서흥행중인예원좌 (藝苑座)와 지방순업중인 황금좌 (黃金座)와의사이에배우의대량이 동문제를 중심으로말성이되여 뗄 경경찰에까지 문제를가저온 사건 이잇섯다 예원좌는창립당시부터 도 다른극단의배우를 풍부한흡집 로서 흡수하야흥행계의 일대협위 처럼 생각되여 명성소관종로서에 서 압선에출마하야 배우의이동은 그정도로 정지하고 그이상은절대 업기로하고 일단낙착되엇섯인데 이 번에 지방순업중의 황금좌의배 우리준희(李準熙)김종후(金鍾厚) 엄재송(嚴載松) 송우섭(宋禹燮) 허광라(許光羅) 로재신(盧載信) 등(女)동여섯명이 암암리에 예원 좌로부터 전차금을밧고 작일밤에 몰래 지방순회중의황금좌를 빠져 서비밀히 상경하엿다는것이다

이에황금좌는 이간부급 배우를 일시에 여섯명이나 일허버리고그 만지방흥행이 거진불가능 하게되 여 크게낭패하야 단장 성광현(成 光顯)씨는 칠일아침종로서에달려 와서 섭유원을 제출하고문제의해 결을 청하엿다 그서에서는 이미 전번에 예원좌는이이상 배우의유 출을 안하도록되엇것인데 또다시 이런사고를 이르킨것은 자미업다고 하야 곳예원좌의간부를 소환하야 진상을 조사하리라하야 전기여섯 명에대하야 경우에의하야는 출연 을 금지할는지도 모른다고한다

古武士假裝行列

三月十日에擧行

삼월십일의 륙군기념일 봉축가장 행렬(假裝行列)은 십일 오후령시 반에 자동차로 군사령부를출발하 야 종연회장인경복궁(景福宮)으 로갓다가 도시에 종로경찰서를거 처도보로 행진을개시하야 조선은 행압, 남대문, 한강통을지나군사 령부로 돌아갈터인데 이행렬은군 사령부원약오십명이 참가하야상고 (上古)중고(中古)근고(近古)유신 (維新)근대(近代)의다섯시대의군 인모양을일기식게표시할것이다

本紙保管者表彰

創刊以來全紙保管者는

三月十五日內로通寄하시라

본보가 금번에 삼대경사를 마지함에 잇 서 긔념으로 행할 열다섯가지 사업은 이 미 발표하야 독자여러분도 다 아실것이어 니와 그중의 한가지인 창간호 이래 본지 보관자(保管者) 표창은 다음과가튼 규정 하에 상품을 드리게되엿스니 본지를 보관 하신 여러분은 이규정에 비추어 속히 본 사서무부로 통지하기를 바라다

一、創刊號부터昭和九年末까지의本紙를保 管한讀者에게本社紋章賞杯를贈呈함

一、保管者는保管紙의內容을詳記하야來三 月十五日까지本社販賣部로通知할것

一、本社員및支局員의調査를經하야賞品 授與與否를決定함

他殺嬰兒屍―

犯人搜査中에 腐爛兒屍또發見

＝漢芝面普光里뒷山에서＝

嬰兒屍續出로龍山署眼鼻莫開

부외아현리(阿峴里) 삼백팔십삼번지리엄 덕(李嚴德)의집변소에 버린어 린이 시체를 해부한결과 타살유 긔로 판명되야 그범인을 수색코 저 사법계형사가 맹렬한활동을개 시한 룩일오후네시경 또다시한지 면 보광리(漢芝面普光里) 뒷산에 서도 생후며칠되여 보이지안하는 썩은어린이 시체가 발견되엿다는 보고를 밧고즉시 서빙고(西氷庫) 주재소서 림검하엿스나 버린지약 일개월가량으로 썩어서 남녀를구 별할수 업는형편이라 한다그서에 서는 계속하야 나오는영아시체사 건에 놀래여 속히그범인을체포코 저 맹렬히 활동중이다

안해를차저주오

가난한 남편과못산 남편과는살수 업다고 정부와손을잡고 서울로사 랑의 도피행을한 안해를차저달라 는남편── 강원도 평강군 유진면 사창리(江原道平康郡楡津面社倉 里)사십칠번지 김명옥(金明玉)은 그의안해 한련년(韓蓮年)(假名) (二〇)이가 작년사월금음경에 아 모말업시 집을떠나 종적을감추후 그래도 돌아오리라고만 밋고기대 리고잇든중 서울서 만나보앗다는 사람의 말에의하면 그의안해는 그와가튼면 후평리(后坪里)에 사 는 전성긔(全聖基)와손을잡고 서 울로 와서 청엽정(靑葉町)삼정목 ××번지에 사랑의보금자리를 맨 들고잇다고한다하야 그의 안해를 차저달라고 룡산경찰서로 청원하 여수색원을제출하여왓다

今年度府의豫算

4,145,391圓

手數料水道收入等의增加로

前年보다豫算增加

소화십년도 경성부 일반회계예산 은 그동안각과에서 심사한결과륙 일까지에 사정이끗나서 칠일아츰 발표하얏는데 세입(歲入)은 경상 부(經常部)에이백칠십만이백칠십 팔원으로 작년보다 이십팔만륙백 이십일원이 늘엇고 림시부(臨時 部)에일백사십사만 오천일백십삼 원이어서 작년보다 이십이만오백 이십이원이 늘어서 총계사백십사 만오천삼백구십일원이라한다

세출(歲出)에 잇서서는 경상 부가 이백십오만이천이백오십삼 원이고 림시부에잇서서 일백구 십구만삼천 일백사십팔원이다 세 입의증가는 경성부에 중요한것은 일반사용료(使用料)와 수수료(手 數料)즉분뇨(糞尿)반출료등의 증 가와 시설수도수입(水道收入) 증 지수입(證紙收入) 기타 도로수익 세(道路受益稅) 등 부세(府稅) 수 입의증가이고 림시부에는 보조금 과물품 매각대와부채(府債) 등이 잇스며 세출에잇서서는 제이황금 교(第二黃金橋)와 여섯군데 교량 의가설과 도시계획조사비 삼만 이천구백 이십원의계상과 경성시 구개수비 오십일만원의 계상인데 그중 도로개수비(竹添町二丁目阿 峴里間、太平通二丁目東四軒町間、 敦化門光化門通間、旭町二丁目日 出學校間、光化門通太平通間) 사 십오만칠천원이가장중요한것이다 다음으로는 위생비로망우리(忘 憂里)묘지설시비륙천륙백원과 공 원비(公園費)일만사천구백팔십원 을 계상하야 효창(孝昌)사직(社 稷) 장충(奬忠) 남산(南山) 탑 (塔)삼청(三淸)등 여섯공원의확 충과 운동장의 수영장과 경구 장을일만오천일백원으로 확장 식히는것이다 새로히 일천사백원 을 계상하야가스마스크등 방공 (防空)방독(防毒)재료의구입등이 중요한것이다 따라서 이예산을 의할경성부회(府會)는오는구일오 후두시부터 경성부회의실에서 개 최하기로되얏다

委任土地賣喫

딸아주마하고 남의 토지문서를 마타가지고가서 자긔명의로 변경 하야팔아먹고 도주한 사기범인이 삼년만인 작일룩일에서대문경찰서 원에게 붓잡혓다 범인은고양군 중면장항리(高陽郡中面長項里)에 본적을두고주소부정한사기전과일 범김기용(金箕容)(三九)은재작년봄 에 고양군연희면아현리(延禧面阿 峴里) 일백륙십칠번지 리언룡(李 彦龍)(二三)의 소유로 당시 시가백 원짜리 가량되는 논 삼백삼십뉵 평을 팔아주마하고 소유권등기 증서와 그의 인장을 바더가지고 가서자기명의로 변경하야 시내종 로오정목 이백칠십일번지 서재원 (徐載源)에게자기가가졋든채무칠십 원대신으로 넘겨주어버리고 어대 로인지 자최를감초아 버렷든것이다

絶大名篇 久遠의盟誓 天才少女 케리·쿠파氏 主演 十三日封切 團成社

阿片密賣犯

시내태평통(太平通)이정목사십륙번지중국인 손연루(孫延樓)(三?)이라는자긔 집을본거로하야일대아편밀매를 하야오는데작년팔월부터한개에대하 야삼십전내지 오십전 씩을바더서그간 전귀손(?) 직관(?) 아편소굴로 되여잇 섯는데이사실을탐지한 시내본정 서(本町署)에서는룩일오후열한시 반경에 밀매중인 손연루등 전 괴소굴에서 아편 먹고잇는 현 장을 습격하야 한곳에서 아편 수롱한개와 흡연긔구 주사긔등 을압수하고 밀매범 손연루등을 검거 하야 방금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傷害致死

안성서(安城署)에서는 수일전부터 안성군공도면 소사리(安城郡孔道面素沙里)륙십 팔번지박고두(朴古斗)(三八)를잡아 다 하고 취조중인데사건의내용은 아 래와가타 지난이십칠일오후일곱시경에박고 두의장남 박종헌(朴鍾憲)(一三)이 가 가튼동리 륙십오번지 조한근 (趙漢根)의 집에잇는 박은수(朴 殷洙)(二〇)에게 무슨일로 어더마 젓는데 이말을드른 박고두는그만 분개하야 박은수를차저가서 함부 로때려주엇다고한다 그랫드니 박 은수는 그만며칠뒤에 이로인하야 죽엇는데 이를안 소관안성서에서 는 상해치사혐의로 그를엄중취조 중이라고한다

春塘閑景(금일창경원에서)

桃色街에假醫師

花柳病專門으로歌價注射行脚

―病院小使의건방진副業―

도시경성의 풍기문제는 새삼스 럽게 지금에시작된 문제가아니지 만 거기는또한이것을기화로 비합 법의 도색비상선에잡행하야 화류 병에우는백사노예에게싸갑스른륙 백륙호주사를노아주고대긔는무면 허의사가적지아니하야경찰당국은 그취체를 엄중히 하고잇드니칠일 아츰 밀경그중의 한명이종로서에 검거 되엿다 그는시내팔판동 (八 判洞)일백륙십오번지동아의원(東 亞醫院)소사 안병환(安炳煥)(三七) 으로서 벌서오래전부터 시내돈의 동(敦義洞)사번지 내외주점 작부 권채옥(權采玉)(二〇)김죽난(金竹 蘭)(二〇)을 비롯하야 시내의 내외 주점초과 은군자촌을 도라댕기면 서 임질등은 이원식밧고주사를노 아주고잇섯다는것이다 그서에서는 더욱히 다른사람들을 경계할필요에서도 엄중히 처벌하 리라한다

그립든婆婆도氷世界

監獄을自願被捉

五年前의내家庭을밧비차저들고보니

妻子는離散！집터는廢墟化

五年間情부친

오년동안이나좁 은한늘아래서기 거하다가오래간 만에감옥을나오 기는햇스나 몸을잇지에 호흡할동 기는잇서도 몸부칠집도 잘자리도 업스므로 차라리감옥으로 다시가 기를원하야 출옥한이튿날 남의집 에 침입하는체하다가 일부러경찰 에붓잡힌 사람이잇다 칠일새벽여 섯시경에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 팔십오번지의 담장을 너머서침입 하는 괴한을종로서원이 발견하고 곳체포햇는데 취조한결과 그는 아현리(阿峴北里) 오십칠번지 에 본적을둔 김병철(金秉哲)(三二) 로서 룩일아츰에 오년의징역을 필하고 서대문 형무소를나와서벳 집을 차저가니 가족은 리산하고 집터도업서지고 터엿고 당장 처납부 런도 몸부칠곳이업서서 감옥에 갈목적으로 범행을 하려고한것을 자백하엿다고한다

多年間懸案이든 定期渡船實現

【송천】 십여년전부터 풍천지방 에서 희망중이며초도(椒島)발전 상 당면긴급문제이든 풍천초도간 정긔도선(定期渡船)설치는 경비 문제로 아직까지실현을 보지못하 고오든바 소화십년도 황해도지방 비보조로 일년륙백원을 정긔도선 업자에게 보조키로하고 십년도예 산에 계상되엿스므로 초도에거주 하는 김봉긔(金鳳基)씨가 삼천오 백여원을드려 정긔도선을 경영키 로되엿는데 관계지방면민은 희열 이만면하엿다고한다

同志被殺報復 再襲擊計畫

移動頻頻한李紅光一派

【警務局發表】 상일일에평북대안 림강현 륙도구(臨江縣六道溝)에 지장충곡(長虫谷)에진출하야륙도 구시가의 습격할긔회를 엿보고잇 는무장단두목 쌍홍(雙紅)와 오투 목이솔한 사백명은 일만경비긔 관의 추격함으로 습격하기가곤난 하다하야 그중의일백삼십명을 제 외하고는 남어지는 오일오전십일 시경에벼지착초정자(錯草頂子)에 이동하고 잔류부대는 륙도구로부 터착초정자 또는칠도구에 통하는 교통을 막어버리고잇서 일반부민 의 교통은불통한상태라한다 또장백현신방자(長白縣新房子)경 찰서에서 팔도구서에 보고한바에 의하면 오일오전십일시에 륙도구 방면으로부터 팔도구오지대호(大 湖)에계통이불명한 무장단삼백명 이 이동하여와서 목재운반과일반 려행자를 저지하고잇는데 그들은 일전 동흥(東興)습격당시에 전사 한륙명의동지에대한보복수단으로 동흥의재습격을 계획하고 잇다한 다이번점으로보아 그들은 공산군 리홍광(李紅光)일파로보인다는바 오일오후시경에간구자(干溝子) 에나타나 다시설매를 다수징발하 야가지고벼지로이동하엿다한다

殺父犯(?)吳天一

上告公判開廷코審理

商業에失敗한經路를陳述

傍聽人으로法廷滿員

자기아버지를 죽엿다는오천일(吳 天一)(三?)에관한치사기 피고 사건의 상고공판은 칠일오후한시 이십분에 고등법원에서 히두(廣 瀨)재판장 우명(于名)검사의담입 주간흠(朱幹欽)태재(太宰)두변호 사의출정으로 개정하야 사실심리 를개시하엿다 방청석에는피고의 안해와친척기타방청인들로 만원 이엇다 피고가 진남포(鎭南浦)에 서 정미업을 경영하다가실패한경 로와기미(期米)에손을대엿는데 새버 리고 드듸여파산을 하여버리게된 전후 사정과그다음에 그의아버지 가살해된뒤남의빗(債)을 만지고 만주로도망한 정도에대한 심문이 잇고서오후삼시반에 휴정하엿다 오후두시반부터 심리를 계속하게 되엇다

二千圓橫領犯逮捕

칠일아츰 종로서에서는 관내관철 동(貫鐵洞)영신려관(迎新旅館)에 묵고잇는 경주읍 황남리(皇南里) 구십번지 김대환(金大煥)(二?)을 체포하야 경주경찰서로 압송햇는 데 그는 일즉이 경주군로동면(路 東面)서정수(徐廷洙)의 정미소의 사무원으로 잇스면서 지난 십 이월이십일에 그거래처인 영일 군 포항(迎日郡浦項) 중곡(中谷) 정미소에 향하야 그가잇는 정미 소의명의로 돈이천원을 가저오라 고 전화를하여서 그돈을가지고도 망하엿다고한다 소관 경주경찰서 에서는 그즉시로전조선각지에 수 배햇든것인데 그는 그후함경남도 에가서 배회하다가수일전에 상경 한것을 종로서에서 탐지하고체포 한것이라한다

天氣豫報

曇小雨又는 小雪模樣

七六七미리의高氣壓은 東中國 海로부터 朝鮮及日本에擴大되 고 滿洲方面은氣壓이약다 中 部西岸이호린外에 全朝鮮은大 槪日氣가조타 氣溫은 釜山五 度外中江鎭의零下九度間에잇서 昨朝보다 多少놉다 明日은호 리여 雨나小雪이잇슬模樣이다

昨日 最高 八度四 最低 零下三度二
今朝 最低 零下三度二
今日 正午 四度二

運動競技

올림픽陸上競技 採點制提案

世界올림픽大會 陸上競技에잇서 서從來에는 選手權獲得者의 表 彰에만그치고 그順位는 各國이 便宜上이를 各自가採點하고잇섯 는데 이번日本陸上競技聯盟에서 는 來年의第十一回大會부터 競 技順位에依한 採點法 一等六點 二等五點、三等四點、四等三點、 五等二點、六等一點이란 制度를 採擇하기를 國際競技聯盟會『에 드스트로ー므』氏에게 書面으로 依賴하엿다 日本陸聯의 新提案 이採用된다면 優勝者가만흔나라 가當然히有利할것으로 個人優勝 外에 올림픽陸上競技에參加한各 國의順位가正式으로 決定될것임 으로同委員에서는 이를贊成할터 로서協議할것으로豫測되나

籠、蹴球를合하야 三百名派遣

明年獨逸올림픽에

『오슬로ー』의國際올림픽委員會 에서는 伯林大會에 正式種目이 면서도 只今까지 一回도行하지안 햇든 籠球를選手權種目으로처음 으로擧行할것과蹴球競技를正式種 目으로 復活키로 決議하엿는데 日本體協에서는 第十二回大會東 京招致運動의意味로 籠球와蹴球 에도代表選手를派遣할方針이라한다 이로서 陸上水上의各五十名、漕 艇、蹴球各二十名、하키ー十五名 籠球、體操、馬術各十名 拳鬪、 레슬링各八名 其他本部役員及多 數올림픽代表를合하야 實로三百 名의大遠征軍이獨逸에派遣될터이 라하며 派遣費는 四十萬乃至 五十萬圓을突破할모양이라한다

陸上競技와記錄承認願提出手續變更

日本陸上競技聯盟에서는 記錄 承認願提出手續方法을 다음과가 티變更하엿다

競技會主催者는

A 競技會期日 二週間前에記 錄承認願(二通)要項을記載한다음 加盟協會를거처 地域協會에提出 할것

B 競技會終了後에는聯盟制定 의記錄用紙에記入하야(三通) 푸 로그람二通을添付하야 地域協會 에提出할것

C 日本記錄이作成되엿슬時에 는 本聯盟制定記錄保證書에要項 을記入하야 地域協會에提出할것

地域協會

A 適當한役員三名을 立會人 을派遣할것

B 競技會終了後에는 記錄承 認願에 立會人氏名을 記入하야 記錄表푸로그람等各一通式을聯盟 에送付할것

中等選拔野球

來卄八日부터八日間

大每主催의 第十二回中等選拔野 球大會는 既報한二十校의爭霸戰 이 來三月卄八日부터八日間 (雨 天順延) 大阪甲子園球場에서 열 리게되엿다

集會

◀朝鮮人柔道有段者會에서는 第 一回臨時總會를 十日午後二時에 關鐵洞武道館에서 열터이라한다

大奉仕的 愛用御禮景品付投賣急告 金時計主義

特製 瑞西 時間正確

(流行三味型) (淑女用舟型)

(16型) クローム側中パリスアンクル 實物
A 七石入 九、八五
B 九石入 一一、九五
C 十石入 一二、九五
D 十五石入 一三、九五
E 十五石入 一四、九五
F 十五石入 一五、九五
R 十八金側十五石入 一六、八〇
高級品 K 十八金側十五石入 一七、八〇
18 バンウス型 八、〇〇
クローム腕卷時計
11型 A 七石入 五、八〇
B 十五石入 六、八〇
18 R 十八金側十五石入 二三、〇〇
K 十八金側十五石入 二四、〇〇
八九型 十五石入 五、〇〇
八型 クローム側流行三味線型 七、〇〇
10型 A 五石入 五、〇〇
B 十五石入 六、〇〇
9型 A 十五石入 五、五〇
B 十五石入 六、五〇
8型 A 十五石入 七、五〇
B 十五石入 八、五〇
クローム側淑女用舟型
5型 A 十五石入 七、五〇
B 正大金側(婦人用)二五、〇〇
御買上ノ方ニ洩レ無ク景品券付
(本社在庫品五萬個限リ賣切迄)
御送金ノ時ハ振替口座郵便爲替

景品 一等 大金側中高級品 二十名
二等 眞珠大金指輪 三十名
三等 高級蓄音機 五十名
四等 大人用高級自轉車 百五十名
五等 外國製皮鞄 …
(抽籤發表) 昭和十年六月中旬 東京新聞社ノ立會嚴密ニ致シマス ○中央日報
〆切 昭和十年五月末日迄

御注意 前金ノ方ハ送料本社負擔(代金引換ハ送料四十錢) 注文高三割以上ノ方ハ送料中額但代金引換希望ノ方ハ十錢切手封入申込下サイ 投賣中本務復舊付型錄請求謝絶
東京市牛込區早稻田町四六 振替口座東京六二七八一番 合名會社 石田商會

日本大學 學生募集
法學科 學部 法律學科・政治學科 試驗期日 四月三日 入學資格 高等學校・大學豫科卒業者
專門部 法律科・政治科 高等專攻科 入學資格 中等學校卒業者
高等師範部 (夜間授業) ◎修身公民科 ◎國語漢文科 ◎地理歷史科 ◎英語科 ◎師範專修科(地理歷史科ノミ但昭和七年三月以降該科卒業者ニ限ル)
◎試驗期日 自三月一日至三月卅一日 四月二日(筆記) 四月三日(口頭)
◎特典 中等教員無試驗檢定資格アリ
◎詳細ハ東京神田區三崎町高等師範部ヘ入學心得請求ノコト
◎詳細ハ東京神田區三崎町法學科宛入學心得請求ノコト

新民謠 半島를振動시키는 朝鮮타령 姜弘植 Columbia 四〇五五 콜럼비아레코드

朱子家訓 朱夫子家敎子訓 一册 定價金 五十錢
發行所 廣成醫院 朝鮮京城府武橋町三番地 振替口座京城八七一四番
販賣所 滙東書館 朝鮮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七番地 電話光化門一五五八番 振替口座京城七一二番

東方儒賢詩集
崔孤雲致遠 安文成公裕 鄭圃隱夢周 李退溪滉 李栗谷珥 金沙溪長生 宋尤庵時烈 許眉叟穆 金仙源尙容 金淸陰尙憲 宋淵齋秉璿 崔勉庵益鉉 이오니 僉購爲望
四拾頁 定價金 一圓

醫方新鑑 東西醫學硏究會 前會長 韓秉璉 著 再版
右册은傷寒、雜病、婦、兒、鍼灸、藥性으로治療하든 前聖醫書卌六帙이古方과 本人의 五十年經驗方을抄謄著述而治病最要하고 醫生藥種商試驗에도必要하니 僉位速速購覽爲望 該代金大割引
付上中下全三編 定價金 二圓五十錢
九龍醫院發行所 明倫町 …

●부자되는비결
●本書는乙亥年을當하야 … ●送料二十錢
●本社의販賣部 京城府 … 番地ノ十七號 金相根
僅十圓의資本으로開始하야 一日四五圓의收益이잇다
●特約販賣者大募集 …

어찌하리까

키가적어서 비관이되오

문 남자로서는 아모래도키가후리후리해야 풍채도조코 위엄도나서 사내다워보입니다. 저는평생의소원이 키큰것이요 평생의보기실흔것이 키적은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도 제키는그다지크지를못하온바 나히이미 스물셋으로 다시 클것도갓지를 못합니다 이세상에는 약도만코 약방도만싸오나 키크는약을 파는약방은 한곳도업는모양입니다 의학박사랑반들은 모도다키가큰지요? 왜좀키크는약을 발명하지못하얏슬까요? (新義州 鄭〇〇)

키크면싱거워 적어도고초씨

답 녯말에이르기를 키가크고서는 싱겁지안한사람이 업다고하는데 나의실지경험으로보아도 그말은 과히헷되지안한것갓습니다 키가넘어 적어서 반듯이조타는것은아니오나 그러타고무조건키큰것만 취할수도업는일입니다 아니그보담도 속담에이르기를 고초는적어도 맵다고하는말과가티 키적은 사람중에 위대한인물이만습니다 일즉이 나폴레온은 키큰사람을배척하야자긔 아래중요한지위에는 될수잇는데까지 키적은사람만을뽑아썻더라고합니다 왜당신은 키큰것을 그러케부러워하고 또왜 당신은 키적은것을그러케한하십니까? 키큰서양人사람을보시고 그저상식적으로판단하신것이아닙니까? 그러나서양人사람이라고 반듯이키가다큰것은아닙니다 불란서가튼나라의사람들은 보통으로 우리조선人사람보담 별로더큰것이업습니다 그뿐이아니라 키가크도적도다 재생긴대로 재능을발휘하야가면 그뿐입니다 큰키를 주리려고 할것도업지만 적은키를 늘리려고 애쓸것도 업습니다 신문광고로보면 키를 키우는 긔계가 잇는것도갓습니다 그긔계가 엇지는알수업스나 그긔계의 효력은 잘알수업습니다. 하여튼 정히 키를키우고 십거든 그런긔계를 사서 시험해보시기를청합니다. 세상에는 밥이업서걱정하는사람도만코 옷이업서걱정하는사람도만흔데아마당신은 그런걱정이업스신듯합니다. 딴걱정이업스니까 키키울것과가튼한가스럽고 팔자편한걱정이나오게되시는것도 무리는아니외다 (〇〇生)

家庭

상수리와 도토리는 몃촌간인가 쌀나는풀일홈은뭣

조선말잘모르는아이들에게 『풀싸홈』을장려합시다

지식이라는것은 반듯이한눈짜나알고 산술깨나하는것만이 지식이아니외다. 동물이나식물의이름을 만히알아두는것도 중요한 지식의하나외다. 그러나우리조선人사람들은 도모지 그러지식에 무관심하지를안습니까? 참나물이 무엇이지 미나리가무엇인지 또는상수리와

도토리의촌수가

어떠케되는지를 모르는분이만습니다. 녯날에서울人사람들이 쌀을 베나무의열매로알앗다고하는 우수운이약이도잇지만은 시골서 생장하얏다고 반듯이 동식물의이름을 다잘아는것도아닙니다. 요사이 중학교도다니고 전문학교도다니신분들은 식물학 동물학을 배호아 설마쌀을 베나무의열매라고는말하지안켓지만은 조선말로까지 모든동식물의이름을 알게되지는 못하는모양입니다.

이름을만히안다

공자스님이 자긔아들더러 시전(詩傳)을 읽그라고 권고하면서 시전보아야초목금수(草木禽獸)의 이름을만히알게된다고하얏더랍니다. 초목금수의이름을만히알아야 필요하다는것은구태어공자스님의 녯교훈을빌지안터라도 잘알수잇는일이로되 불행히조선에는 시전과가튼조흔책이업서서 그런것을글로만은 공부하기가거의불가능한일입니다.

×

그러나시골가면 봄날따듯한볏발아래서 어린아히들이 풀싸홈이란작난들을 합니다. 풀싸홈은 무엇이냐하면 각가지의풀들을다각각뜨더가지고 서로비교해서

누가더만히뜨덧나

를내기하는것입니다

『얘 꼿다지잇니?』

『그럼 꼿다지를 안뜨더. 너말맹이 내노하라』

『말맹이가업거든 구긔자人순이나 호렁나물을 대배로내어노호렴』

×

『천진스러운 아히들이 행여나 남에질까 이풀저풀을뜯드려다니는것도귀엽거니와 남이뜯는풀을 제가못뜯더서 분하고애타하는풀도 대견합니다. 만일댁에도아히들이잇거든이풀싸홈을가르켜주시는것이 조흐리라고생각합니다.

풀싸홈을하자면

자연히풀니름을 만히알어지게되지안습니까? 교육적의미로보더라도 얼마나효과잇는일이겟습니까? 하필아히들끼리만이아니라 아버지나어머니께서 측접아들딸들다리고풀싸홈을하셔서도 재미잇는일이리라고생각합니다. 모르는풀이름을가르치어가면서 더구나 그풀의식물학적관찰까지를 설명하야가면서 풀싸홈을하시면 의의잇는유희가될것입니다.

×

나무한주도업는

서울서는 손人바닥만한마당에 풀한폭이 테 풀싸홈을 엇사하랴고하실는지는모르지만 봄노리로 들에나가거나 산에올라가서는 못할것이업습니다. 산이나들에도 공연히 휘돌아다니다가 온다는것은 종심심도한일이니까 그런때풀싸홈가튼것을 해보는것이조켓습니다 흔히 창경원밤人사구라때 어린아히들을 끌고들어오시는분이만흐나 그것은 꽤찬성할수업는일입니다. 차라리 나제다리고오서서 동식물의이름을 아라켜주시는것이 떠나지안흘까합니다. 더구나 산모퉁이 풀싸홈을하기에 적당한곳도업지를안습니다. 그런곳에서 자라는자녀를 해보도록 하시는것도 조치안흘까합니다.

家庭 메모

넥타이의때를 말쑥히빼는법

넥타이가 더러워슬때에 휘발유나벤진으로 닥는것도조호나 뭇시더러워슬때에는꾸어맨자리를 뜨더가지고 휘발유에당거 뚜껑을 꼭덥퍼두엇다가 이십분이고 삼십분만에 꺼내어그늘에서 말립니다 잘마른다음에는『제라찐』한상을 묽한홈에녹여서 넥타이 안쪽에뿌려 모양을 고르게해서두어 전체로윤기가 돌거든 양복다리미로 다립니다 넥타이는감의올이 가루되여잇기때문에 다릴때는 반드시올을따라다리십시요.

家庭醫學

배가부르고 속이쓰리다

문 생은 이십사세된남자이온데 일년전부터 소화불량증으로고통합니다 증세로말삼하면 식후 이삼시간후이면 배가창하고쓰리며신트름이나옵니다 간혹단음식을먹으면 더욱쓰립니다 하로걸너씩한번대변을 봅니다만은곱피고 안섯던지 변소에 다녀나온후에는정신이 희미하고 금시로쓰러질것가트며 배를누르면 무엇이펄적펄적뜁니다 선생님병명과 자택치료법을 하교하여주시요 (江陵 〇〇生)

답 아마위궤양(胃潰瘍)인것갓습니다 첫재로 소화되기쉬운음식을먹게하고 자극이잇는음식은피하며 생유 회튼(8)회를잡습니다 이조터라도 소화불량의증세가심할때에는 죽가튼것을 자십시요 배를누를때 뛰는것은 동맥파동이만처서그런것인고로 누구나 물론하고 다만처지나 당신은소회가 잘뇌지안는고로신경질이되며 보통사람보다 예민하여진관계로 파동이더잘만치여지는것입니다 위궤양증에는좌긔처방을복용하여보십시요 속히낫기가어려우니인내하여 오래동안이라도치료를 해야 나흘수잇슬것입니다

處方

炭酸가르시음 一五·〇

炭酸마그네시음 一五·〇

酸化炭酸蒼鉛 八·〇

右散方用法則一日三回四回每一茶式服用(大學病院伊藤內科朴東秀)

봄十녀성=범죄

부인네마음을덧드리지말라 칼날보다도더예리하기쉽다

봄이 되면녀성의 범죄가만허집니다 더구나 그범죄는성적동요(性的動搖)가직접원인이 됩니다 그리하야 그범죄로는 질투(嫉妬)때문에상해라거나살인가튼일이만습니다 평소에는 퍽수동적이든녀성이 봄바람에 이런범죄를저지르게 만히생기는것은 대개가생리적으로 업어나는여러가지 원인에귀인되는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봄이되면 아는듯 물우는듯 녀성미를발휘하는데 마음을 쓰게되며 거진 중성(中性)에 가까운 든 십륙칠세의 어린소녀나 또다시중성으로 도라올 시긔에잇는녀성도 여러가지로 생리적위험을 늣기게됩니다 또 공연스러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자긔도몰우게시리 자살을 하는일도만습니다 이것은 가정생활이 뭐만지 못하다거나 억압된 생활을 하는녀성에게 특히 만습니다 그러고 변태적으로 동성을 사랑하거나사람을 괴롭혀 잔인한 행동을하게되는일이 만습니다. 그리고 지방녀성들이 집을나가거나 또는 생활의 불안때문에 자긔아히를 죽여버리는 일도 만습니다

◇

더구나 남성에대한 복수적 심리가 이봄에 흔한것입니다. 그리하야 늘짜증을 잘내이게됩니다

◇

어떠튼 봄바람은 죄가만허녀성의 마음을 부풀여서 흔들어 노하 평소에는 상상도할수업는 비극이 만히 생깁니다

◇

이봄에 특히 녀성되시는 분은 주의 해주시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안토록노력하십시요

라디오

三月七日 (木曜)

◇午後六時 兒童劇 童劇研究會 指揮 金麗秀

◇同六時二六分 藝術復習講座(五)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講話 新敎育運動의理論과實際(一) 普專敎授 吳天錫

◇同八時 女聲合唱 안단테…칸타빌레…차이꼼스키

三月八日(金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길군악 二、打鈴 三、山念佛 四、… 五、방아타령 六、…

◇同二時 衛生講話 春節家庭의衛生(一) 尹泰權

◇同六時 (東) 獨唱 一、새봄…西條八十作詞 中山晋平作曲 二、봄노래…野口雨情作詞 …

◇同八時三〇分 … 作曲 … 作詞 …

◇同九時 …

◇同六時二五分 國語復習講座(十) 田川孝雄

◇同七時三〇分 講話 新敎育運動의理論과實際(二) 普專敎授 吳天錫

◇同八時 西道歌謠 一、愁心歌 二、孔明歌 三、… 四、京城四巨里 三、… 白牧丹 柳開東

◇同八時三〇分 … 一協奏曲二十三番中…第一樂章 알레그로 …

三月九日 (土曜)

◇午後零時五分 腳本朗讀 수수떡 安鍾和

◇同二時 衛生講話 春節의家庭衛生(二) 尹泰權

◇同四時三〇分 入學試驗合格者發表(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同六時 童謠 一、… 二、… 三、…

◇同六時二〇分 兒童講座 …

◇同六時三〇分 藝術復習講座(十六)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講演 京城市街에對하야 …

◇同八時 春心 妓生 … 申鼎言

◇同八時三〇分 【漫談의저녁】 …

◇同九時 漫談 尹白南

第一放送

◇午前〇時五分 浪花節

◇同二時 軍事講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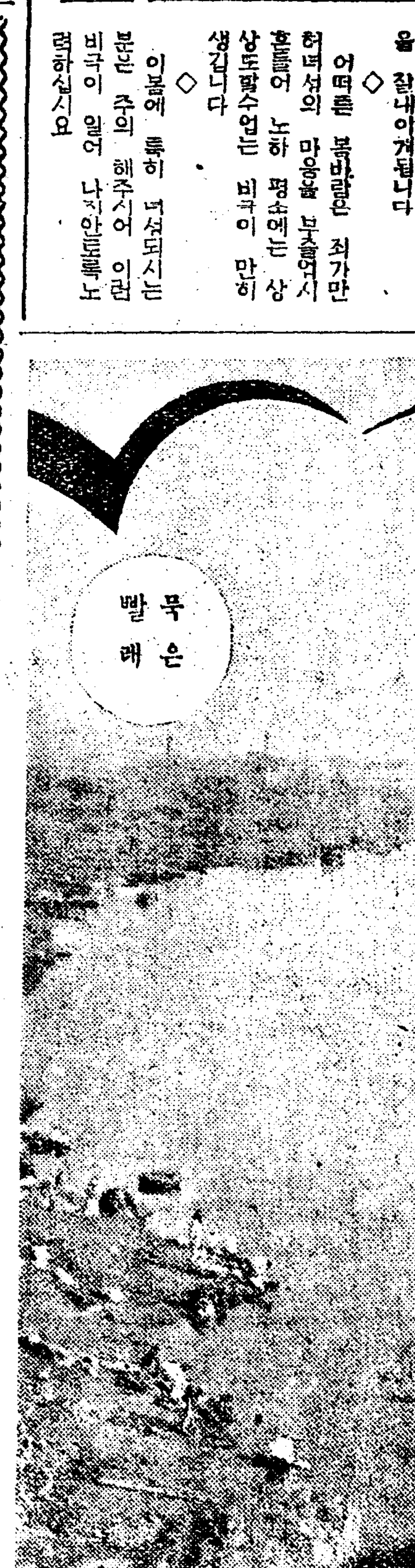
◇同六時 詩吟

◇同七時三〇分 浪曲

◇同八時 (東)宋 定

◇同八時二〇分(東)講 談

◇同九時 時事解說



묵은 빨래

묘하다 물속에서도놀수잇는 공기총 용하다!

토구가리 생긴무거운 잠수복을입고 바다人속으로 드러가서 작살로고기를 찔러잡는것은 여간어려운 일이아닙니다 물은 공기보다 철신업기때문에물속에서의 활동은 륙지에서보다 상상과딴판으로어렵습니다 어슬렁어슬렁 달팽이처럼 느리게바닷속 바위틈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낫잠을 자는 고기나 꼼짝안코 잇는 조개가튼것을 찔녀잡는것입니다

◇

그런데 최근에 불란서에서 놀라울만한것이 발명되엿습니다 그것은 물속에서 노을수잇는 공기총입니다 사진과 가티잠수부는 머리에 잠수모를쓰고 허리에 공기 주머니를 다렷는데 이주머니에서두개의 관(管)이 하나는 호흡을 위하야 잠수모속으로 드러가고 하나는 공기총의 공기실로통해잇습니다 고동을 틀면 공기가 공기실로 드러감니다 이공기가 압착이되여서 방아쇠만다리면 총구녁속에 독작살이 핵나가게 되것입니다

交換台

부녀들히롱하기와편싸홈질 싸홈패등쌀에겁나못살겟소

뭇는말 요전자상봉산(雙鳳山)과아현리(阿峴北里)의 젊은이들이 이틀밤이나두고편싸홈을해서신작로를 떠나갈뜻이고함을지르고 돌팔매질을하고 인가를파괴하고 야단법석을하얏는데 그것을 경찰당국에서는 전연몰랏는지 알고도 내버려두엇는지 좀물어보고십습니다. 그뿐이아니라 좁은골목에서 지내가는 부녀자들을 가로막고서서 가진음담을 다짓거리고 가진행패를 하는데 그것도경찰당국에서 어떠케 하고잇는셈인지 좀물어보고 십습니다. 그런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것은 부랑자를 실컷양성해가지고 나중에 검거를하려는것이나 아닐까요? 그러지말고 애초부터 단단히훈계하고 엄하게처벌해서 장래다시그런버릇을 못하도록하는것이 조치안할까요? 지금우리동리에서는 아조의고찌들어서 인제는 그저그런가브다하고지내게까지되얏습니다. 경찰당국에서도 그것을모를리야업는데 도모지 별반대책을 강구하야주지안하니 답답한노릇입니다 (孔德里 一有識者生)

대답 그런무리들에게는 엄벌주의로씁니다

공덕리(孔德里)에서 불량한청년들이술을먹고 길가에서 지나가는부인들을희롱한사실은잇습니다. 정월이래로다섯명을데려다가 얼마동안식 구류시킨일도잇습니다 종래에는 관대히처분하야 이틀이나 사흘이나 구류시켯섯는데 이지음에 다소불량배가 늘어가는경향이잇슴으로 경무주임과도상의하야 엄벌주의를 써옵니다 이후에도 술을먹고 불량하다고 인정되는행위를하는때는 엄벌하야 이런일이업도록 주의하겟습니다 아현북리(阿峴北里)와쌍봉산(雙鳳山)을중심으로 편싸홈이 잇섯다구요? 그런보고는 밧지못하얏습니다 물론 그런일이잇슨것을 알엇스면취체하엿슬것입니다 현석리(玄石里)어떤술집에선가 술배달꾼들과 그동리면사람과싸홈이나서 서로 고소까지한일은잇습니다 좌우간 편싸홈이라든지 또는술먹고야료를한다든지 일반사회생활에 조치못한영향을끼칠것은 엄중히취체할방침입니다 공덕리관내에는일전에도 목간통에가는부인에게폭행한사실도 잇섯고 또이런일이 비교적만흔곳임으로 철저히단속하겟습니다 (龍山警察署 司法主任)

네속을내가안다

오-귀여운애기! 어디가 아퍼그러니 누갈사랑을 울고잇다가 그대로생겻나 부군그랫 아니아니 바늘에질려 바늘끗이부러저 속으로 깁히드러갓나베 이 이를엇저나엑스광선을비아 처음까 아-니 팔떼기와 다리 마디에 철사가 원원이야 뱃속에 동그라케 깜한것은? 꼭누르면 삐-하는것. 오-라 인제 뫼터니 정말 어린애가 아니라 인형이야 인형.

投書歡迎

이난을 만히 리용하셔서 억울한일, 눈찔을 리는일, 괴이쩍은일 그타무엇이든지 직접눈으로보고 당하는일을 써보내십시요 그러나 자기와즉접관계업는일, 사회에반향을끼치지안는 일개인의사생활을 들추어낼것은업습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는 안홀찌라도 본사까지는 주소씨명을 적어보내서야합니다. 그리고 글씨는 순조선문으로 깨끗이아러보도록써 보내시지안으면 안내는수도잇습니다

曆

三月八日 (金) 舊二月(小)初八日 癸未·木·亢定

●祭祀冠帶時刻乙卯時坐向은東南

▼驚蟄六日(舊二月初六日)

▼春分二十一日(舊二月十七日)

少年小說 과자벌레 (五)

니구조

황수복이가 처음에는 딱총을 줍네 사탕을 갓다 줍네하며꾀이던 얘기, 그리다가 태호가수업료 가저오는것을 보고 사탕집으로 끌고 가서 퍼내라던얘기 실타고 하니까 필경 유바직러서 하는수 업시 월사금주머니에서 끄내준 얘기, 그리고 기한안에 꼭 갑하준다고 말만해내려온다는 얘기를햇습니다 태호아버지는 잘고도잘 햇다 못햇다고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안저만 게섯습니다. 태호는 자기가 한노릇을 되집허 생각할때에 함북 꾸지람을들어야속이 시원할것가태엿습니다 다에굿지게도 수복이 헌에놀려서 달삭을 못하고 월사금꺼정 갓다바친 못난이라고 뉘우첫습니다 아버지가 면서기를 하여서 벌은 피땀 석긴 돈을 정작 쓸데는못쓰고 히시부시 수복이과자갑으로 주게 되다니? 태호는 무한정 아버지한테 난장맛듯두들겨 맛엇스면 마음이 풀릴것 갓겟습니다.

『아버지 저를 막 갈겨주서요』

『……』

태호아버지는 유리창경만 내다보고 계실따름이엇습니다. 수복이 아버지는 너털웃음을 껄껄 웃으며,

『응청스럽게 남의 월사금을 사덕어? 그녀석이 과자벌렌게야』

◇

일학년서부터 륙학년까지 태호와 수복이 새 얘기를 모르는 학생이 업스리만치 퍼젓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복이에게는 『과자벌레』라는 새 별명이 생기엿습니다. 황수복이라는 본명은 모르는 학생은 잇서도『과자벌레』라는 별명 모르는 학생은 드물엇습니다

『과-자벌레』

『과-자벌레』

힘센 학생이나 약한 학생이나 아래반이나 웃반이나 물론하고 걸핏 수복이를 보기만하면『과자벌레』라고 놀리엿습니다 공부시간에 뭇는말에 어릿그래도 비우슴을 바앗스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다른바짐을 하드래도 웃기엿습니다 태호는 공부도 운동으로 가고 상도 타고 동무도 만엇지만 수복이는 밤낫 흉만 잡히고 놀림감 노릇만 하다가 겨우 륙학년 졸업을 하게되엿습니다 (一六)—

樂界消息

重田不二子、石川義一 音樂演奏會

중전불이자(重田不二子)양후원회주최로 금칠일밤 칠시반공회당에서 중전불이자양(독창)과 석천의일(石川義一)씨(피아노)의 음악연주회가잇다고

우리차지

『편지바드시요 윤홍식씨 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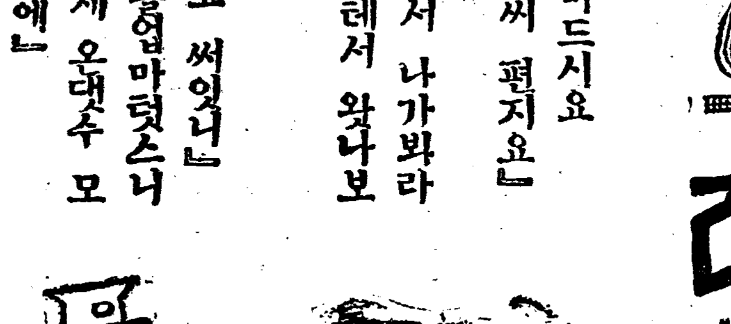
◇

『얘 어서 나가봐라 언니한테서 왓나보다』

◇

『뭐라고 써잇니』

『학교졸업마덧스니까 인제 온대수 모래아침에』



글그림 (한용옥)

春風 (22)

夕影 作、畵

『영옥이』

영옥이는 자긔를 부르는소리에 휘도라보니 교무주임이 서잇다 그는가슴에서 덜컥 내려안는것이 잇섯스나 태연한긔색을꾸몃다

『무러대고 어듸를 가는모양이야』

『그래 정말 갈텐가 가면 어듸로 가나』

『……』

교무주임은 비창한긔색이다

『인숙의외가에가서좀잇겟서요』

『인숙의 외가라니 남의집에무슨덕으로 가잇나』

『아니예요 저하고잇스면 아무상관업서요 그집에는 외할머니한분뿐이니까요 늘-적적하다고 하셧는데요』

인숙이가말을가로찻다

『그럿타면 모르지만 그러면 영옥이잘가잇서 참안돼군 이러케슬슬히가게되니 그러면 장차어찌살겟는가』

『살길을 개척하면 되겟지요 앗가는 선생님께 너무 버릇업시 해서 죄송합니다』

『나도좀흥분이되여서 너무심햇서 조용히학교에들와야해』

『네-그러면 교장선생님께 잘 말슴드려주서요』

『그러치 그런데 이건너무약소하지만 돈한푼업시남의집에가잇자면 답답한데가만흘터이니 바더두엇다가 용돈으로라도써』

교무주임은 미리준비를햇든지 십원짜리두장을 영옥이에게 내밀엇다 영옥이는눈이둥그래진다

『아니예요 천만에요 선생님댁의형편도 잘아는데요 이러케만흔돈을……그만두서요』

『잔말말고 어서바더 정으로바드라구 선생이래서 엄한것으로만 아러서는안돼 분필가루를마시고 사는사람도 인정이라는것이잇슬터이니까』

『그러면 밧겟습니다 너무도신세만저서……』

『자-그럼가지』

『네-』

영옥이가인사도할새업시 도라스는 교무주임은 휭하고늑기며 고개를폭숙이고 뭉처서간다 영옥은 그의태도에감격하얏다

-정말나를위해주시는이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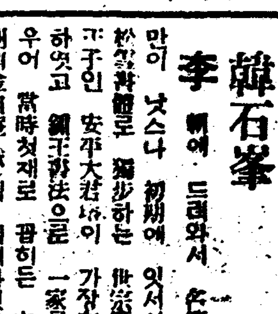
하고는 그의거룩한긔나 진것가태서 마음이괴로웟다 영옥은 교문을나서서는 도라다보고 도라다보고하엿다 다사로운꿈터를 영원히떠나는것이다 하니 인생의 모-든일이혼잡한것도가렛다 나는무엇을위하야배왓누 무엇을위하야 사러가는것인구하엿다 그러나 모-든등상감하고 애쓰는것을보아서는 거긔에 무슨큰뜻이잇지안으면안되는것이라 하엿다 사러보자 배화보자 태식을사랑하자—그의마음은봄볏가치 명랑해지는것이다

영옥은 인숙이를따러 인숙의 외가를온지도 여러날이되엿다 인숙이와 마조안저잇는 일에대하야의논도해보고 초조햇스나 초조한울이인숙이는영옥이만못하엿다 인숙은 자긔의시골계모가혹작을 노라서 상급학교를못가는것이 고통이엿지 생활에대하여서는 어듸로가거나 걱정이업는 처지엿다 그러나 영옥이는 초조할대로 초조해서 얼굴이못되고 잠눈을 이루지못하얏다 어느날 이집에는 조그만소포하나가 배달되엿다 이것은동경에류학하고잇는 아들과 딸에게서온것이다 아들은 조도전대학을다니고 딸은 음악학교를다닌다 이들이봄방학이되엿스면 조선에올것이나 그들은 이곳의봄보담동경의봄을숭겨하야 여름외에는오지를안엇다 인숙의 외조모는 동경에서소포가왓단바람에 인숙이를 재촉하야 끌러보자고하엿다 그것은 사진이다 먼저인숙의 외조모와 인숙이가 머리를맛대고 사진을드려다보며 얼굴이 허젓느니 웃고박히엿느니 딸의 엽헤는 사나히가 인물이조흐니 하고 깃버서 짓거리다가 그로 파는 눈물이글성글성해지는것이다

아래목에 웅숭거리고안진영옥은 이것이부러웟다 누구는 어머님이게시여 사진만보고도 저럿듯시 조하들하는데 자긔의어머니가 사러게섯드면 학교를졸업을 하고 도라오는딸을보시고 얼마나 깃버하섯슬것인가하엿다

『영옥아 너두좀보렴 우리와가 아젓씨하고 아주머니사진이야 아조 멋지게박혓서 좀보아요』

하고 인숙은 영옥의압흐로사진을 미려놋는다 영옥이는 남의사나희사진을 로인압헤서보기가 붓그러웟스나 인숙의청이니 보기로하엿다 그러나 그는 이 사진을보자 그만 깜짝놀랏다



史上에나타난 藝術家의群像 (19)

……湖岩

安平大君과 韓石峯

李朝에 드려와서 名家이 만이 낫스나 初期에 잇서서는 松雪體로 獨步하는 世宗第三王子인 安平大君(瑢)이 가장有名하엿고 鋼王孫法으로 一家를일우어 當時첫재로 곱히든 中宗朝의金自庵(絿)이 뛰여나섯고大字와草書를 잘쓰며 金剛山萬瀑洞岩上에 蓬萊楓岳元化洞天이란 八大字의 筆蹟을 머무른 明宗朝의 楊蓬萊(士彦)가 두드러젓고 宣祖王의 五百年書道의 第一이라는 稱號를 드럿슬뿐이 아니라 中國名士로부터 오갓 最高讚辭를 다밧게되든 宣祖朝의 韓石峯(濩)은 가장 놀라웟다 安平 自庵 蓬萊 및石峯은 흔이 李朝

四 大家로 稱하엿다

그러나 自庵은 글시를 즐겨 쓰지아니하엿고 蓬萊는草書에 長하엿슬뿐임으로 四大家中에도그 實은 安平과石峯이 서로雙을 다투게 된다 그러면 兩家의優劣이 어떠한가 李朝後期에 나타난名儒인尹白下가 일죽 이를論評하야 갈우되安平은 才가功보다 압서고 石峯은 功이才보다 지내다고하엿다 대저安平은 天才가卓越하나 不幸히禍를 넘어三十六歲에 早卒하엿고 石峯은六十三歲까지 享壽하엿스니 安平보다 石峯은 功力을 그만큼더 싸흘機會가 잇섯다 그러치만安平은 高貴한王子임에 反하야

石 峯은 貧寒한 士子이니 그處地의 差異로 생기는 環境에對한 眼界의廣狹은 또한 어찌할수 업는 일일는지 모른다 石峯은 그 一生이 이러케 不利한 逆境에 노엿슴에 不拘하고 오히려 能히 奮發하야 李朝第一大家가 된것은 勿論天才도天才이지만 刻苦精勵하야 쉬임을 모르는 努力의힘이 이에 이르게 한것을 알어야 하겟다 中京誌를보면 그가家貧하야 조희가 업슴으로 나가면 石牆에 쓰고 드려오면 陶盆에 익히다 하는것이 아니냐 그도金生과 가티苦學에서 成功한 意志的偉人이다 安平은 才로勝하고 石峯은功으로 지내친다 함은 兩家에對한 適評이라한다。

安 平은 匪懈堂이라 號하고 또는梅竹軒이라하니 王子로도 學을 조회하며 더욱詩文에 長하고書法이奇絶하야 天下第一이되엇다고까지 稱하엿다 安平의書는 上述한바와가티 趙松雪의書法을그대로 본떠맛스나 그遒勁한氣品에 이르러는 서로莫上莫下하리라는 評이 일즉부터 잇섯거니와 安平이 한번王子로서 松雪의書法을 倡하매 이로부터以後는朝鮮書家이모다 이法을 쓰어 마침내國俗을 일우엇다 그러나 當時安平의筆이 書道의本山인 中國에서 얼마나珍重하엿는지明使倪謙이 朝鮮에 왓다가 安平의 書를 바더가든니 그後朝鮮人이 燕京에 나가筆을求하매 燕京人이 反問하기를 貴國에

名 筆을 두고 구태여 여기까지 와서 글시를 請하느냐 하고 웃섯다는 一逸話에 依하야 녀녀이 진작할것이다

石峯은 中宗三十八年 癸卯(西紀一五四三)에 松都에서 出生하야 明宗丁卯에 進士가 되니 그때나히는二十五歲니 宣祖二十五年에 壬辰亂이 일어날때 그는 五十歲이다 무릇 明國에 交聘 接 그他 交涉에 關한 詞翰은 石峯의筆이 儐接의文과 아울러 國家에 크게 貢獻이 잇섯스며 그때 朝鮮에 救援으로왓든 明將李如松 麻貴等과 琉球使梁燦이 모다 石峯의 書를 求得하야갓슴으로 그의筆名이 누구보다고 널리알기게 되엇다 그리하야 中國名士로 石峯書를 推稱한이가 얼마든지 잇섯는데 王世貞가튼이는 石峯書를

怒 猊抉石 渴驥奔泉과가다고評하엿스며 朱之蕃가튼이는 石峯書가 맛당이 王右軍、顔眞卿과 서로優劣하리라고 評하엿다

◇◇◇ 지난날 이처지안는追憶 ◇◇◇

北大陸의하롯밤 ❶

……韓龍雲

五十餘年의 過去를가진

나로서 追憶 만한 이 업슬수가 업는것이나 平日에 생각할때에는 追憶할만한일이 別으로도 相當히만하고 貧富도 그럼 하야서 그것을 글로적으면 제법 볼만한것이 잇슬것가텃든대 금기의『追憶』를 써보라는指定的付囑을 밧고 붓을드러 쓰라하매 별로 쓸만한것이업고或 잇대야 지금서서 내노키에 不便한 것이잇슴으로 平日에생각든바와는 아조 딴판이다 이로미루어보면 追憶뿐아니라 모든일에 對하야아모일이업는때에漠然히

생각하는것 과實際行動

과에는 만흔差異가 잇는것을다시금再認識하게되다

『一棒春風別故人』 이것이三十年前이른봄에 元山埠頭에서 海蔘威로가는배를 탈때에나를餞送하야주든 어느知舊에게 지어준 詩에서記憶나는 한쪽이다 그것이나의入山한지 몃해안되어서의 일인대 나의入山한動機가 單純한信仰만을 爲한것이 아니엇든만치幽閉한 雪嶽山에잇슨지 멀지아니하야서 世間煩悶에 驅使되야無錢旅行으로 世界漫遊를떠나게 된것이엇다 그때짐은 나뿐아니라 朝鮮사람은

大槪世界에 對한智識과

經驗이 별로업섯슴으로 아모因緣도업고 外國語한마듸도 모르는 山間의 一沙彌로 突然히世界漫遊 더구나 無錢旅行을 떠난것은 愚痴라면 愚痴오 冒險이라면 冒險이엇다

그러나 世界의 事情과地理를 너무도모르든 나로서 海路와陸路를 대강이라도 알라면 그래도 사람이 만히모이든 京城으로가야 하리라는 생각으로 雪嶽山百潭寺로부터 京城으로向하게 되얏는대 때는陰曆八月初旬이라 입운진에는 勿論 氷雪이 싸여잇스나 暖暖地에는 눈이

相當히녹이 는때임으로

산골내人물은 어러부튼곳도 잇지마는 어름이 녹어서 흐르는곳도 잇섯다 百潭寺서 京城을 오랴면 山路로 二十里를나와서 加平川이라는 내를 건느게되는대 그물의 넓이는 約一마장이나 되는곳으로 勿論 橋梁은 업는곳이엇다 그내에이르매 내가 눈녹이물에 부러서 相當히 만하얏으나 눈녹이물이 어름보다 찬것을 多少 經驗해본 나로서 渡涉에 이르러 건느기를 躊躇하지 아니할수가 업섯다 이것이 世界一周의 첫難關이엇다 치운때에 눈녹이물을 건너보지못한 사람으로는 그만것이 人生行路의難關

되것너나고 웃을는지도

모르지마는 한번이라도건너본다면 그어려운맛을 알것이다

다리를 춉신것고 건느기 시작하얏다 산골내에는흔히 大小不同한 둥근돌이 깔렷는대 거기에 몸이끼가 입히면 미끄럽기가 짝이업서서 발을부칠수가 업는것인대 이加平川은 그런중에도 더욱 심한곳이엇다 건느기시작한지 얼마아니되야서물이 뼈시찰뿐아니라 발을드듸는대로 미끄러지고부듸처서 차고아푼것을견댈수가업섯다中流에이르러서는

다리가저려 다고아푸다못

하야 感覺力을 일흘만치麻痺가 되얏슴으로 肉體는 抵抗力을일코 精神은忍耐力이 다하얏다假令 精神의忍耐力은 多少의餘地가 잇다할지라도 抵抗力과 感覺力을 일흔 다리는 到底히精神의 最後命令을 服從할수가업는것이엇다 도라올내야 도라올수도업고 나어갈내야 나어갈수도업는 그야말로 進退維谷 남은일이잇다면 그것은 주저안는것이아니면 넘어지는것뿐이엇다 百尺竿頭進一步 忽然히 생각하얏다 나는 적어도한분업는맨주먹으로 世界漫遊를 떠나지안느냐

어떠한困難 이잇을것을

覺悟한것이아니냐 人情은 눈녹이물보다 더욱찰것이오 世途는 조약돌보다 더욱險할것이다 이만한물을 건느기에 忍耐力이 不足하다면 世界漫遊라는 것은 부질업는일이 아닌가하야서 스스로 나를 無視하는同時에 다시 奮發하얏다

차고 아푼것을 참엇는지 이젓는지는 모르나 어느결을에彼岸에 이르럿다 다시보니 발등이 찌저지고 발人가락이 깨어저서 피가흐른다 그러나 마음에는 건너온것만이 痛快하얏다 건너온물을 도라보고 다시금一切唯心을 생각하얏다

내人가에안저서비선을

신노라니 五十歲가량되야보이는 男子와 三十餘歲됨 女子가 오더니 男子가 나의 다님치는 것을 보면서 말을뭇는다。

『이물을 건너오셧소』

『네』

『얼마나 길음데까』

『그대지 깁지는아니합니다 마는 리만것고도 건늘만합니다』

『대단히 차지요』

『네 차기는 대단합니다』

創造的教育觀 (下)

……申晟雨

孔子가 曾子에게이르되『吾道一以貫之』라 말하엿는대 此一以貫之의一은 忠恕를云함이오

仁義 禮智 모든道를 忠恕 卽中心 如心으로 貫之함뿐이니까 聖人의道는 忠恕而已矣라하엿다 그러니까 만꼬달은사람의 子女를맛타教育하는 教育者는 中心으로正直하게 其任에 當치안이하면 안될것이다 俗句에 誠心一到何事不成이란 俗句도잇는바와가티 弟子의教養에 熱과誠意를다하야 힘쓰면 반다시 그教育的効果는 百파센트일것이다 『第三』權威와信任 教育者는 權威가잇스면서도

弟子 들에게 가장 信賴를바들만한 人格者야만되다『第四』自然과藝術에對한 趣味를가즐것 卽時間의 餘裕가잇는대로 自然을探踏하며玩賞하야 孟子의 이른바 浩然의氣를 養成하며 他方文學이나 美術音樂等을 鑑賞하며批判하는 能力을가지고 弟子를 高尙한趣味的雰圍氣로 指導할것이며『第五』恒常教室에서나 校庭에서 欣滿한顔色을 가즐것이며 運動과遊戲에 多少라도 素養을가지고 生徒의彼等生活에 參加하야 其時間에

有効 하며 아름다웁게맛치도록 實地指導할만한 敎師가 되여야한다 第六 豊富한常識을 갓기爲하여 多方面의有益한 書籍읽기를 게을리말것이며 一方修養과教育에關한書籍과 또는自己의專門에關한 書冊도 만히읽어 教育者다운 特色을가즐것이다『第七』社會의教育에對한 要求가 那邊에잇는가를 觀察하여 實生活에關한 知識과技能을 研究하엿다가 必要한機會에 傳達指導할만한 敎師가되여야한다『第八』社會의 裏面에흘으는 基本的思潮와 及一般輿論을 머리에考慮하며 是是非非

判斷 하며 學生들이 迷路치안토록 指導할良師가되도록 努力할것이다『第九』信念을가지고 處世上、職業上權利한 人生觀을세워 學生들을 精神上으로 잘指導하는것等이 教育者의任務이며 修養을要하는 點일것이다 以上의第八、第九는 主로 中等學校以上의 教育者에게 對한 말이며 一般的으로보와 以上諸條件이

具備 하기는 좀어려운일이나 其中 不可缺의條件은 高尙하고 圓滿한人格、豊裕한趣味 典雅한常識、圓平한人生觀、實社會에關한知能等의 要求이다

그러니까 責任을맛고잇는 教育者는 恒常 此等의修養을 게을니말것이며 既往에 教職에 不滿한 教員이잇다할지라도 實로 育英事業에 뜻이잇다하면 人格의修養에 依存한點이만코니까 絶對로 落心할것은 업다 故로『시세로』가

人生 의 成功의秘訣을 말하되『第一에大膽、第二에大膽、第三에도 大膽가이라』하엿스며 英國의『라쎄크』는『第一에根氣、第二에根氣、第三에도 亦是根氣라』하엿스니 此는 事業의成功은 不斷의努力에 依存한다는것을 意味한것이며 孟子의所謂 有恒心者는 有恒產이란『恒心』도 此等의事를 示訓한것이니까 熱誠과根氣恒心을 가지고 持續的으로研究實行하면 반다시 그功을일울것이며

良師 의名譽를 獲得할것은 無疑의事이다。

봄편지 봄노래
자백이우숨들

장덕조

미용그몸을 내여밀고다시 자리에 쓸어젓다 수북이 버개우에 어스러지는 까치집가튼 머리털! 나는 간밤 품속에서 이엉키인 머리털을 헤여내느라고 한업시 고생하든것을 생각하고 억지로입꼬를 찡그려보앗다。

『당신을 위하여 서왕은 봄나물이 시들기 시작하는구려 채워두엇든 나바김치도 시어젓소 여서 오시요 빨리 돌아오시오』

버개 밋헤 너허두엇든 그의편지를 끄내여 다시한번 읽기 시작하엿다。

밥은 누구가 해주며 몸시중은 누가 들어주는지주야로 마음이 노하지안코면서도 마음대로 를 떠날려가지못하는몸이 한업시원망스러웟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대내적(對內的)으로 아즉 상삿의 고민을가지고잇스면도 김치까지 당거노코 별은 안해를 거다리는 마음—밀라 빠진 손끗해 편지를 움켜쥐은채로 오똑한이잔 내눈에는 눈물이 핑도랏다。

『봄나물 봅나물—』

지못하여든 날ㅅ자를 생삼스럽게 꼽아보앗다。

열흘 열이틀 열나흘! 오늘이 꼭 보름째나는 날이엿다。

그동안을 구든밥과물본 힌죽조차 바로 소화를 식히지못하고 그저 미음、미음만으로 연명을 하여왓스니 엄마나 몸인들 수척하엿스랴만은 다시 죽음이당장 눈압해 다처잇는듯한 마음의고통이란 비길곳도업섯다 더옥이

『엄마 엄마!』하고 나지안는 정꼭지를 물어뜻다가는 눈물을 즐줄 흘리면서도 다른사람에게 안기워가서 그조고만배를 채우는 어린것을 볼때마다 만약내가 이병의 정체를 잣을수잇다면 당장 달려들어 해칠울잡고

어미! 내가슴속에는 참회에가까운 눈물덩어리가 확확 맹을 몰고잇섯다。

시골로 떠나오려든 전날이엇다 집일로차저온 선희가 이런저런 말끗헤 돌연히 나의하향을 반대하엿다

『서문제를 위함만이 아니드라도 여하든 부부는 한집한방에서 살아야한다』는 이유어엿다

원래 약질이요 벼꾸럭이인내가 막상 귀향하야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날이면 의례히 꿈꿈차매고 알아누울줄을 번연히알고잇는 남편도 극력 내의사에반대하엿다

그러나 고집을부려가며 단손에 어린것을 들처안고 뛰여왓는나는 나리든 그날부터 자리를것지못한것을 벌서보름날이나 되엇든것이다

더욱이 한손으로 맥박을헤이면서 무위한날을보내고잇는나—허구만흔일들을 가득이 차하듯코도 열에뜨운머리에 납덩이갓흔 우울을 품줄줄은든 자신을 돌아볼때 곳업시 민망하고 부끄러웟다

——◇——

봄이와네 봄이와

웃처녀의 가슴에도
나물캐려간다고
아장아장 걸어가네

벌서학교에서 돌아왓스리라 동생총각의 부르는크다란 노래소리가 고요한집안을 갑작이뒤흔들어놋는다 그것은 어듸한구렁에구비구비 퍼지는 과문처럼말라빠진 내입술에서도 수숨늦자아내여주엇다

나드리가섯든 어머니가 돌아오시는지 대문소리가 빽꺽하자 나는어린애처럼 크다랏케소리질럿다

『엄마 저녁에는 나두밥먹우! 냉이나물해서 나두 밥먹을려야 응』

——◇——

저녁——

흰밥에 냉이나물을노흔 밥상을밧고안ㅅ자 나는다시 우울해젓다 무럭무럭김오르는 단단한 밥이조곰도 식욕을자극하지안을뿐더러 말라붓흔나의 위장은이것을밧아드릴 재간이업는것이우나잘알고잇기때문이엇다。

더욱이 빨라가는 봄나물을 못처녓코(初經) 죽음을끄런옷코)혼자소반을대하여 안젓슬 그를생각하니 공연히 목이 메여올라 일부러 퍼울린밥알이 투리알처름 어리여 보이엇다

동시에 남편의 장점이 한가지 한가지 생각나고 그의단속해주든말이 가닥가닥 귀에 울리자 지금 무슨죄나 짓고잇든듯한 고와한 미안을느끼면서볼이붓게 서울이 가고십혓다

그는 생활과 삶이라는것을업숙하게 생각하고 땀과힘으로인생을 살아갈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엇다

나의 조고만 공리심을 멸시하고 엄마나 라일러주엇던고

그는 가난한가운데 잇스면서도 릴끗만한 거즛말을못하고남용소일줄을모르는 사람이엇다 말엇시성인의 마음을 본밧은 착한사람이다

이러든人한 그이엇스나 사회에서 놉흔자리를엇지못하고 안해에게까지 만흔 정성을 밧지못하엿다

『밥먹겟다고 큰소리하든나 뿐상을 대하드니 웬눈물이돗거니맷거니야눈물』언니가 대구로우습보를 터트리는바람에 어머니까지 따라우스며 나의 생각의 나래는 갈갈이 찌저젓다

언듯 눈물드니 섬아도 아도웅숙하도 모다 자백이갓흔 입을 열고 옷고잇지안는가

나는 엄떨결에 냉이나물을 (밥인줄알고) 한수까락입에 덥석너헛다 뿌리굵은냉이는 물고 갈라진힛바닥에부딋치자 고초보담 더맵고 숨개보담도 더썻다

『이게 씀냉이요?』입속에 든 냉이뿌리를 배앗드며 정신업시 수깔을 집어던젓다

『아욱내봄은멀엇구나』방안에다시 우승소리가 일어낫슬때나는 솔발가튼 머리를 움키쥐었체로』꺼울고잇섯다

『내겨도봄이 오거든 봄나물을 먹자! 아즉은 겨울 내마음은 어름갓혼 우울뿐인걸!』

울어도울어도 솟테옆는 눈물이 한업시솟다젓다

二、二七 大邱에서

春街所見 (5)

文壇

未知의女人 (2)

鄭甲作

(二)

여긔는돈화(敦化)、신경(新京)과도믄(圖們)사이에잇는상당히큰 도시엿스나 아직불편한점이만흔 다 경영하는 이공사에온지 나는두서너달밧게아니되엿지만은 변화업는소도시에 권태를느긴때엿다 또다시 사뿐사뿐 녀노는발자죽소래가 나의가상에 몽클한공포를떠돌게하야주웟다 더큰어조로 랑독을하고잇섯다

『누이가슴을나오머는 이러케가만가만히울나올리치가 업슬터인데 나를속입냐고、그러나』

이러케생각을하며 랑독을계속하고잇섯다。그러나 나의읽는것이 무슨말인지 하나도리해못한것만는사실이엿다。

『쿵쿵쿵』

머리가집분하야젓다。유령이나 본것가티、침이바삭말나부텃다。

『누구요』

『저—』

『드러오시요』

힘들다한 나의목소리는、겨우 들릴만큼、적은목소리로발음되엿다。

『실례합니다』

문을살며시열며 젊은여인이드러왓다。장끝이문득나섯것보다는 이처녀자가、나의마음을、훨신위안시켜주엇다。

『무슨일이게서서——?』

『……저、잠시동안만』

『네 그런데——』

무어라고 더물어볼용기조차나에게는업섯다。잠시동안마엇더케하랴는지 그여해석못하고 나는 멍하니 젊은녀인을바라보고잇섯다 체격은마치남자와가티 훌늉하게발달되엿다 일생에걸어서업풀빈은 히지는안으나 입부게짜개진입술과 명랑한눈은 미묘하얏다。

『물을조곰주실는지요?』

『여기잇습니다』

단숨에두곳보를드리킨 그여인은한숨을푹내쉬엿다。

『별안간에드려와서 놀나섯지요?』

『네 그런데——』

내가물어보는것을 미리짐작한뜻이 나의무겁게열니는 입술을 막으며 그여인은대답하얏다。

『그리유는조곰 보류하야두어주서요』

자기의신분을 밝키지안으며피하는대답이 참으로 교묘하얏다

『그야자유이시지오』

대답만은 나도지지안코하얏지만 어데서느진밤에 침입을하얏나하는의혹은컷다。

『어대로드려오셧서요?』

그여인은살며시웃으며 뒷문쪽을가르키며 태연스럽게대답을하엿다。

『서쪽으로요』

『그러면 전공사압흘지나오셧구면요』

『큰집이 전공사인가요?큰집압흐로왓서요』

『그러케위험한길로——제일한적한도로입니다』

『그러나 홀로게신선생님보다야 것는편이두렵지안는군요』

『하하……』

서럽게대화가 훈잡되엿다。나는 그여인에게 순간적호감을늣겻다 그여인은 밀도적친화력을가저오는것가탯다。

『실례일는지모르겟습니다만보일홍은?』

『저—인에라고불려주서요』

『어집인자와 사랑에스자입니까?』

『네—』

『조혼일홈입니다그려』

☆在東京朝鮮音—
—樂家總動員!! ☆
▽朝鮮樂界初有의大盛事△
「時日」 六月中 「地方」 京城、大邱、平壤
「樂士」 三十名 (樂士氏名不日發表)
故土訪問巡廻音樂會
「主要演奏目錄」 混聲合唱、絃樂四重奏、피아노三重奏、四重唱、二重唱、獨唱、피아노獨奏、첼로獨奏、봐이올린獨奏
▽其他詳細事項追後發表△
主催 朝鮮日報社

新詩 봄이왓사오니

羅운향

님이 떠나려든바로전날—
黃昏무리、비봉산에서
진달내끈어내손에쥐여주며
『離別은우리人生의그림자어니라
人生이잇는곳、어이離別이업스리—이꼿피는봄에번만기다려주오』하더니

胡國모래벌에는진달내도업는가?
지러가는이봄에도消息조차업서라

그대 떠나든비봉산맛!
결치어호르는못가에뎌괴고안저
시름업는생각에가슴조이며
그리운이마음、씨처나보려다
버들개아지만따고따서띄워보내노라

내가슴에떠오르는희망의꼿과
피여나려든환상의꼿을
척다빼아서간 그지언만는
그래도 진달내끈어가슴에안고
멀—니北天을向해한숨쉬노라

이땅에 봄이왓사오니
기름진 고향으로도라오소서
아즈랑이라고서 넌즈시나려오소서
나를잇고 홀로헤매는 그리운님
아!
이봄의 긔양을어기지마소서

三月三日

캐메라로……본봄風景

北村골목애 듯한봄

깃봄을기다리나 슯음을기다리나

올봄은 웃고 맛나고 헤여지소

朝鮮의 都會의情調는 鐘路街에잇는지 행랑뒷골에잇는지모르겟다

너무도新舊의 懸隔한差異가外人의눈에는異常히도 서울려보힐것이다

그래도 朝鮮의봄은 朝鮮보다운데에서 차저볼일이다 大門뒤에 숨어서 깃봄의올엿보든그時節 남의집大門모롱이 量標的으로하고 사랑을기다리든時節 이것이 朝鮮의古今을 말하든것이다

맛나서는 어듸로갈가?昌慶苑인가 德壽宮인가 漢江인가東萊인가 그건그들의게맛겨도조흔일이다

맛나서는 무슨이야기를할가사랑을속삭이는가 貧窮을속삭이는가 靑春에타는血潮로노래가 나오는가 우름이나오는가 이것도 그들에게맛겨둘일이다 그들에입에서 흘러나오는어듸서온시모르는 멜로듸—의 휫파람、군소래

봄은놀겁다하는가 봄을슯허하는가 그들의 맷는因緣이 즐거운때일가 괴로운때일가 젊은사람들이여 젊은때를 굿세게지내라 壯快하게거러나아가거라

이봄은 그들에게 幸福을주고 갈것인가 悲嘆을끼치고갈것인가

이봄에는웃자、웃고맛나자、웃고헤지자

讀書問議

朗默讀의어느편

【問】 讀書하는데는 朗讀이좃슴니까? 默讀이 조슴니까? (谷泉)

【答】 默讀보다 朗讀이 더잘記憶된다고하오나 朗讀이버릇된사람은 默讀을 全然하지안습니다。一定한書齋가업시 아모데서나 讀書를하게되는우리네의 處地로는 默讀을할수밧게업슬것이요 또一定한書齋를가지엇다고하더라도 쩍쩍소리를질러 요란스럽게讀書한다는것은 좀 웃읍습니다。단지語學工夫는此限에不在입니다 그發音을한께 익히기爲하야 거긔는朗讀이좃슴니다。

井田制라무엇

【問】 井田制란 무엇입니까 (井田制란)

【答】 周代의均田法입니다。中國古代에잇서서 均田法이行하야젓다는事實은詩經、春秋左傳、國語周禮、論語、孟子等多數한古文獻에나타나잇스나 周禮 孟子以前에는 그記錄이 大端簡略하고 또周禮는 그著作年代에 疑問이만흠으로 結局孟子로써 그研究의第一重要한 資料를삼을수밧게업습니다。 孟子滕文公章上을보면『夏后氏五十而貢殷人七十而助周人百畝而徹其實皆什一也方里而井井九百畝其中爲公田八家皆私百畝同養公田公事畢然後敢治私事』라고하얏습니다。이것으로 미루어서 夏의 貢法은 五十畝 殷의 助法은七十畝 周의徹法은 百畝를 丁男에게주어가지고 그收獲의一割을 上納케한모양인데 特히周의것은 一里平方을 井字와가티九分하야 中央의一分을公田으로삼고其餘의八分을八家에난호아八家共同으로그것을 耕作하야 그收獲을바치는까닭에 井田이라고부르는것이다。그런데 中央公田百畝中 二十畝는 家垈等으로 쓰는까닭에 실상八十畝니 一家平均 十畝쯤이다。 즉私有田百畝에對하야 公田의 實任耕作은十畝로 什一의租稅를意味하는것이다。그러나周의 初代、中葉、末期를쌀아조금식 다르고、中央과諸侯의나라가조금식다르지안햇든가한다。거긔 對하야는 學者間의容說이紛紛하야 容易하게말하기어렵다。 (金英一)

本欄을시작한지 不過몃칠동안 問議의投稿가 四五百通에이르러 整理하는記者로서 奔忙케합니다 이외가티 여러분의歡呼를밧는것은 無上의榮光이오나 下記諸點에對하야 注意하야주심을仰望하나이다

一、單純히工夫를目的한讀書以外 職業에關係되는지娛樂에 關係되는問題는 一切로解答치안함

二、一人一問을 要하압

三、오직紙上解答에限하압

漢詩募集

題『春雨』 押 知 限 三月十五日

一九三四年은 米國靑年의最厄年

【紐育發聯合郵信】『大恐慌은 나왓지만就職이되어야 할텐데안되는 까닭에 明明해하야만할靑年의意氣가頹廢한다하는 朝鮮에서말할지안혹어조곰나 뉴—욕—市의YWCA幹事長칠러—의학크氏는오조음一九三四年度에잇서서 同會의年次報告書를 發表한中에 『米國의靑年들』그들이孤獨한

就職難時代에 直面에잇다어런것으로보아 一九三四年이라는 해는우리나라有史以來最惡의해라고할해다』 라고하엿다

蹶錄計的으로보아서 一九三四年度는米國靑年의精神도는 道德的廢敗가 가장高貴수잇는自信여할만한記錄인바 그原因은더의크氏에依하면

『現代의靑年이 世界大戰當時에나서 그것때문에戰爭으로해서 생긴不健全한繁榮과 그뒤에襲來하야繼續하는不況裡에 生長하엿다는 事實에도라가는것이다』

한것이다 따라서지금에잇서서何等의對策을 講究한것이緊急한必要인데 그러나陰慘한雰圍氣뒤에잇서서도

『幸하고게는입이넘어 今後는次次로良好하게되리라』 하고끗을마엇다

新刊紹介

▲調査月報 二月號(主要目次)米實收高 麥生産價關調 漁業狀況 水産者の規模に關する調査 特色ある同族部落 漁業別漁獲高 燈火使用狀況調 其他 朝鮮總督府發行 一冊實費所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〇五番

▲中央 三月號 (主要內容)世界的失業과 勞資關係!安炳洙、中國外交의動向!胡漢民、佛伊協定과그影響!鍾錄亭、朝鮮時事評論!紫倪山人、全朝鮮私立學校現勢槪觀(特輯)其他 京城府堅志洞一一一 朝鮮中央日報社發行 振替京城五五七八番定價二十錢

神聖堂 (신성당)

아침해발갓치흥왕하는 신성당

해가뜨면 별이 업서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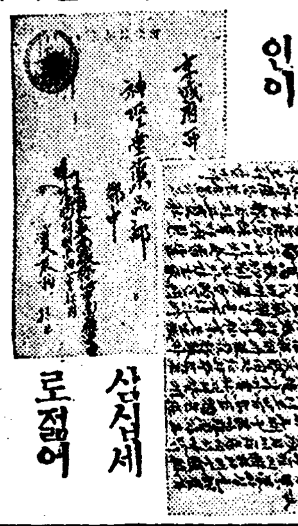
七大名藥 (칠대명약)

보양보음약은 젊어지는 가이자가제일이요

효력최극상 최특등 동서양에 제일유명한 약의정분만 만히 느엇답니다

사람이 제일 몸이 거강하여야하고 싶흔 일을하는대 근래는 튼튼한 사람이적고 약한분이 만허진다。 신경쇠약이나 양기부족이나 원기가부족하야 마음대로 일을 못하게된다。 그리고 인생의 제일향락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은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생존경쟁이 심하여짐으로 뇌를 만히 쓰게되고 애를쓰고 번민이 만해지고함으로 자연히 원기가 쇠약하며 빨리 늙게된다。 따라 양기도 업고 최후에는 신경쇠약이나 폐병이나하고 오래못살고 세상을 버리게된다。 사람은 보통 백살까지는 수명이 잇스나 백살까지 몸이 튼튼하고 원기가 왕성하여야 사회에서 하고십흔일을 할것이며 인생의 향락도 영구히 잇슬것이다。 그런고로 다년연구한 결과 먹는약으로 보음보양하며 로인도 원기와 양기가 왕성하야 청년과 가치 될수잇는 즉불로초라할수잇는것을 발명하엿다。 지금보통 잇는 생식기약이나 호르몬약이나 하는것은 일시적으로 생식기만 흥분식혀 양기가 정력만 업새고 그후에는 심히 약하여지고마누대 이가이자(KAIZER)는 원동력인 원기를 양성하게하는 동시에 보양보음을하야 생식기를 자연히 흥분식히는 작용이 잇슴으로 원기와 양기는 점점 왕성하여질뿐이요 쇠약하여지지는 안는다。 림질과매독을 알엇던지 과색로하고 또선천후천적으로 몸이약하야 양기부족하고 원기업고 신경쇠약증잇는분은 속히 가이자를 쓰시오 양기부족、원기부족、음위、속히되는분、불감증、쾌감업는분、신경쇠약、비혈증。

「약가」주중엔삼원、경중엔오원、송료는 대금인환은 삼십전、선금은 무료 (약우환약이오)



사십노인이 삼십세로젊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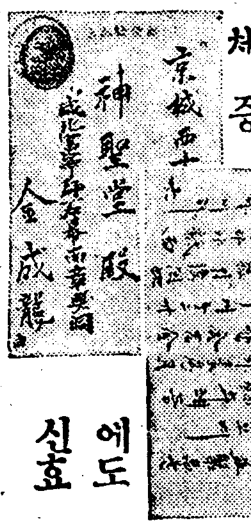
경오ー 체증과속병엔

효력최극상 최특등、최근에 전세계에 유명한후에 쀄에제、도만히 드럿고、세계적대신발명한약제도 전보담만히 더 느엇답니다

무병이장자요 신외무물이라니 병이잇고는전세계재산이다ー자긔것이라고하야도 소용이업고 산해팔진미가눈압헤태산가티싸여잇서도 먹고십자안으니 위장병자의 일평생에욕망은 무엇보다도 빨리위장병이 나어서구미잇서 음식먹고 잘소화하야건강한 정신과 건강한육체로 활발스럽게 남과가티 활동하고 십흔것밧게는 더바라는것이업스리라잇때까지 조치못한 일시적효력업 는 졸은것이나 연히안듯진거나 그러치안으면 인이백이는 중독하는약을 연복하여 백방으로 별별치료를 다ー하여야이특별한효력을 못보앗스리라 그런데참신기한 최근속 최고귀한위장신약 겡오ー를 발견하엿다 그효력의위대한증거는답지하는 이감사장이 증명하오니 잘보시고안심하시고 백방으로치료하여도 잘안되여곤난하는분은 최후의 겡오ー를일각이라도 빨리쓰시와인생의최대향복인 건강미를맛보시오이약은 남녀노소업시유아간기에신효하니가정상비약으로 두시는것이우리위생상재일필요합니다

◇이런증세에분은 쓰시오◇

◇소화불량 만성위장가다루、적、괴、위괴양、구미업는데、산경성위약、위확장、위산과다증、위하수증、구식조선말로주체、당체、회적、냉체、식체등으로무슨 체증이든지 단시간에낫습니다 약은 가루약인데하루에세번 식후반시간후에 온수나냉수에먹습니당 약갑 완고용(頑固用)한갑삼원 중증용(重症用)한갑이원 경증용(輕症用)한갑일원지방송료선금이면 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전 약가를우표삼십전자리로보내도조습니당 (약은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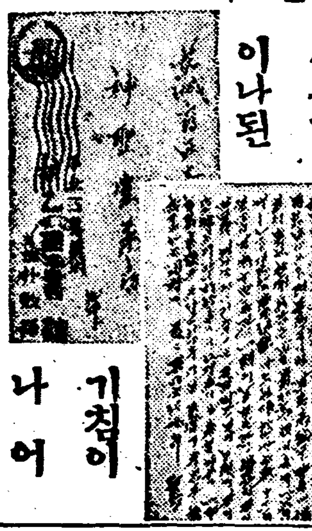


십여년 체증에도 신효

기침·담·천식엔 엣치삐ー가제일이요

남녀노소업시 대개기침을하는거ㅅ인데 여러해된 천식해소 천촉으로 별별약을쓰고 별별치료를하여도 안낫든해소가 신발명한엣치삐ー일주일분으로 대효를보앗다 그러나 멧년동안 기침담이야 곳효력을볼수잇다 다음과갓흔 분은 곳쓰시오 감기 기침은 물론 해소와담나오는대 폐병부족증으로 거침과담이장바치며쿨룩쿨룩하는데 기침이되게나와 훌근훌근하며 젤젤하며 숨이끈너질것갓튼대 되게 안니와도 조금식바튼 기침하는대 기침은안해도장ー담이나오는대ー

【약가】완고용삼원 중증용이원 경증에일원 지방송료는 선금이면 무료대금인환이면 삼십전 약지운환약이오 (약은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십륙년이나된 기침이 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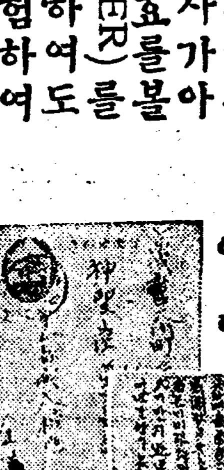
매독에는 푸로다ー가제일이오

효력최극상 최특등、륙백륙호이상의 효가가난답니다

매독은 선천후천두가지로 선조유전또는 전염으로발생하야대개는 사루바루상즉륙백륙호주사 멧대하여야 겨우일시적으로눌너지지만 완치가 잘안되고 여러번재발함으로 이세상에서 매독이업서지지안함을보드라도 륙백륙호가지고는 불완전하다고하야도 과언이아니라 그래서 이불완전한점을업새기위하야 다년고심연구한결과 주사가아니고 먹는약으로 일주일에대효를불수잇는매독약(푸로다ーPROTER)를 발명하엿다 여러가지로 치료하여도 아니되여 고통하는분은 곳시험하여보시요 안심하시고 염여마시고 쓰시요

이런분은 쓰시요○남녀의국부가 허럿스며 가려운데 눈이 히미하고 팔다리가 쑤시고 목이쟁기고 머리가빠지며 여기저기 종기가 터지는데 또 창병 감창코허는데 등에 신효합니다。

【약가】완고용 칠원、중증엔오원、경중엔삼원、송료、선금이면 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전 (약은환약이요)



십여일이 못되여 득효

구로벨 림질과대하증에

효력최극상 최특등、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 독일약(헤루미도ー루)도만히들엇고 세계적대신발명한약제도 전보담만히 더 느엇답니다

구로벨이제일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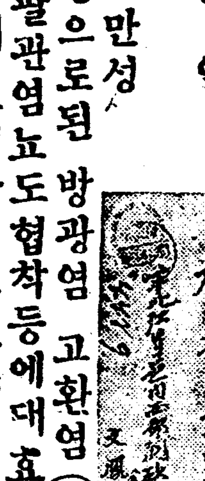
◇남녀만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남녀냉병、오좀소대、월경고르지못한데며、하혈(下血)등으로 별치료를하여보고 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 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여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 안심하고 제일먼저대신발명하신(KUROBER)(구로벨)을쓰오 구로벨은 둘도업는참신기한약이라 를림업시 대효를본다 이러한자신(自信)을어든과결과환자의안심과 신용을엇기 위하야장담하오니 안심하고쓰오 구로벨의특장

一、여러해된고질 특히재발한 만성림질과 대하증은물론 림독성으로된 방광염 고환염(산증) 섭호선염 자궁내막염、란소염、라팔관염뇨도협착등에대효가잇고

二、이약은 다른약가치 지리하게 오래안먹고 만금성간에 오래된 고질 만성 제중이라도 일주일이상 먹을필요가업고

三、림질약치고 위장이 안상하는약이업는데 구로벨만은 조금도 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 조금도 업슴으로 위장이 약한분이만히먹어도트림하나 안난다는 말은대효본 여러분의찬송하는점이오 그런데 이약이 속효가 나고 다른약으로 잘안되는것은 다른약은 오래먹게되여 그동안조섭이 곤난한 소치다

【약갑】완고약성용九원、만성기타제중에五원、대하중 냉병기타부인용에五원、부인오좀소태에 삼원、지방송료 선금무료、대금인환은 삼십전 (오원이나 삼원이나 다 일주일분)



수십년 림질이 이와 갓티

부족증·폐병엔 륵막염 나오삐ー가제일이요

폐병은 불치의 난병으로 일년에사망자가 수십만명이되는데 종래의 치료가 불철저한것갓다 입때까지는 죽접환부의 균을죽일나고 드럿스니 그래서는 절대로 안낫는다 살균도할필요도 잇지만은 한편으로 몸도 보하고 원기를도아주어야 한다。 그뿐더러 잠식(蠶食)하는 부분을 막는 법이새로 발명되엿다。 즉살균보혈강장 포위제지(包圍制止)의 삼작용을일시에하여야된다 이작용을식히는데 종래에는여러가지 치료법이 잇섯다。 제일에 약먹어서 고치는법 음식을 잘 먹는법 일광욕료법 산소료법 가루숨흡입료법등 여러가지가 잇는대 약한가지로 이여러가지 작용을 하는법을 다년 고심연구한결과 발명하엿다。 즉삼기의 중병으로 고통하는 환자도 약을먹기 시작하야 열흘동안에 대효를본 참 신기한 약이다。 이러한 자신이 잇슴으로 안심하시고 별별약을 쓰고 백방으로 치료를하여도 안나어 고통하는분은 일시라도속히 나오삐ー를쓰시오 이런분은 쓰시오

▲구미업고 잘체하고 기침하고 담을뱃고열이나고 몸이 파리하여지고 혈담과 피를토하고 숨이차고 원기가업고 가슴이아푸고 역구리가 절니고 갈비때도 아푸고 수족이 찬분 족부족증 폐병 륵막염 복막염 뇌점병

【약가】삼기용이십원 이기용십원 초기용 오원 송료는 대금인환이면 삼십전 선금이면 무료약은 가루약이오 열흘만 먹습니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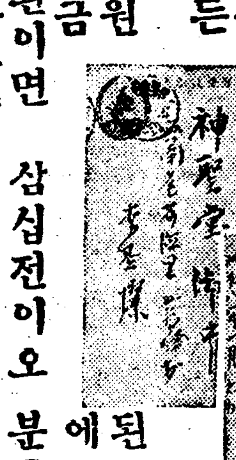
오륙년된 폐병이 이와가티

치질에 엥구루가제일이요

누구나 몰론하고 대개치질이잇는대 여러해된치질로 수술을멧번이나하고조선약한약상약 별별치료를하여도 종시 낫지안튼 치질이엥구루(ANKUR)이주일분으로대효를 보앗스니 일 이년된것이야 곳효력을 볼수잇다 다음가튼분은 안심하시고 곳 쓰시오 피나는대 황문이 빠지는대 암치질 숫치질치루 치결핵 무슨 치질이든지치료됩니다

【약가】중증이 이원 경증엔 일원 송료선금이면 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전이오 분문에느키도하고 바르기도 하는약

【약은 경성 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이십여년된치질에득효

만일 무슨 약이든지 이삼일 쓰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 노병에안맛거나 광고와 틀니는점이잇거나 마음에안맛거나 현저한특효가 업거든 약을곳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側(五) (제일큰서양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품부)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支店代理店特約店大募集

◎七大名藥外數十種을破天荒的大特典으로——特約店을大募集하오니누구시던지規定書를請求하시오

雜穀

昨年朝鮮産實收量 總六百廿萬石

粟三百七十萬石餘 前年보다二割六分七厘減少

◇……其他도一齊收量激減

【七日總督府發表】昭和九年雜穀實收高를 調査하면 南鮮地方에는 七月下旬 激甚한水害가잇섯고 西北朝鮮地方에는 生育期間中 低温多濕의推移하엿는데 그中粟은後後期의被害가 잇섯든으로 生育이順調치못되고 또成熟期에 드러가서는 局部的으로 暴風雨가잇서서 登熟이 有害되엿슴으로써 各作物이 未曾有의減少가 되엿다 卽 實收高를 前年에對照하면 粟은三百七十七萬千七百三十石으로 二割六分七厘의減收 稗는 四十萬六千九百四十六石으로 一割九分七厘의 減收、蜀黍는 六萬四千五百六十九石으로 二割五分七厘의 減收、黍는 四十九萬千四百二石으로 一割九分四厘의 減收 玉蜀黍는 五十一萬六千二百三十二石으로도 二割四分三厘 減收 燕麥은四十五萬二千六百五十石으로 六分七厘減收 蕎麥은 四十八萬四千九百八十七石으로 一割三分五厘의減收이엿다

【備考】蕎麥의減收步合低下는 昭和八九兩年이모두 甚大한凶作이엇슴으로 平年作에比하면四割以上의減收

▲作付反別 (單位町)

	粟	稗	黍	蜀黍	玉蜀黍	燕麥	蕎麥
京畿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收穫高 (單位石)

	粟	稗	黍	蜀黍	玉蜀黍	燕麥	蕎麥
黃海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比較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雜穀實收量 未曾有의大減少

原因은水害와暴風雨其他影響

最少新記錄을出現

昨年産의朝鮮雜穀實收總收量은 六百二十八萬餘石으로 前年實收에比하야 百七十八萬七千餘石의激減인데 이原因은水害와 暴風雨라고 다시이것을 過去에比較하면 昨年産實收量은 未曾見의大減少이란新記錄을 나타내엇다 그러고 段當收穫量을 보면 그中에잇서 粟은四斗七升六合으로 前年보다 六升九合減 稗는五斗二升三合으로 一斗六升四合減 黍는四斗四升으로 一升三合減 蜀黍는 五斗八升으로 一斗二升五合減 玉蜀黍는 四斗三升九合으로 一斗七升六合減 燕麥은三斗七升九合으로 二升八合減 蕎麥은四斗一升七合으로 一斗六合減이다

最近生産年別

昭和二年	八、四三五、五三三
三年	八、六七七、一四八
四年	八、九九四、三九五
五年	九、〇七九、〇六九
六年	八、七六〇、六〇九
七年	九、〇〇七、五〇八
八年	八、〇七六、四九三
九年	六、二八八、五一七

段當收穫量

	昨年	前年
粟	六七六合	六四六合
稗	五二三	六八七
黍	四四〇	五七〇
蜀黍	五八〇	七〇五
玉蜀黍	四三九	六〇五
燕麥	三七九	四〇七
蕎麥	四一七	五二三

米自治管理案의 "索引戰"露骨化

審議未了될가바農會는창황 通過될가바商人妬視

【東京電話聯合】米穀自治管理法案에 反對하야過日帝國技館에서反對大會를 열고全國米穀商聯合會에서는 同法案이通過될는지도豫測키어려운 情勢임으로六日全日本米穀商代表會에纛領하야 今月十一日乃至十二日國技館에 全國米穀商緊急大會를 열고同案의通過阻止에邁進하기로決定하고 即時全國米穀商에게 對하야參加를慫慂하는檄文을돌리엇다고한다

【東京電話聯合】今議會政府提案中의最大法案이라는米穀自治管理法案과 産繭處理統制法案은 農村問題로重大한 社會問題化하야 實否兩論이對峙하면서 目下衆議院에서審議中인데 이反對論의急先鋒인 米穀商聯合會를 비롯하야 一部蠶業家의 反對運動이 激烈함으로 그影響推移如何에 따러서或은 審議未了의運命에 빠질는지 몰음으로 帝國農會에서는 支持하야 어데까지 政府案의 通過를 期코자八日午前十時半 丸內事務所에全國農會長會議를열고纛檄하야 午後一時부터 日本靑年館에 全國農會大會를열고出席者約二千 兩案支持의決議를하야 一般農民에게案의內容을諒解케하는一面政府各政黨貴衆兩院議長에게 右決議를手交하고兩案通過에猛運動을 開始키로되엇다 이번의全國農會大會는 帝農創設以來 第三回이며右運動의趨勢는兩案의運命에 至大한關係가잇다고注目되다

倫敦金塊新高價

▲……六日磅貨反落으로 十五圓卅六錢

【倫敦六日發聯合】倫敦市場의金塊市勢는 昨五日磅貨의恢復에 伴하야 漸日上騰氣勢에서 오래간만에 十一片半의 反落이 엇스나 六日은磅貨의反落을 뜻고 또一變하야 一志五片二分一의暴反騰을演하고 七磅九志四片인新高價를示現하얏다

倫敦金塊는六日은(七日入電)는又復未曾有의 飛躍的高價를出現하야 一온스七磅九志四片인바(六日朝鮮銀行 對英一志二片十六分一로換算)一匁 日貨十五圓三十六錢으로換算되엇스나市中金價는依然不變이엇다

移出入貿易額 二月中出超로

【總督府發表】二月中의朝鮮對日本內地貿易額은 다음에와갓다 (以下單位千圓)

	今年	前年
移出	[illegible]	[illegible]
移入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出超	[illegible]	[illegible]

이것을 前年同期에比하면移出九百一萬八千圓 移入九百五十九萬六千圓의各增加이나 出超는五十八萬八千圓減少이다 그러고一月以後累計는다음과갓다

	今年	前年
移出	[illegible]	[illegible]
移入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出超	[illegible]	[illegible]

前年同期에 比하면移出二千五百七十二萬三千圓 移入千六百二十六萬九千圓 出超九百四十五萬三千圓의各增加이다

今日財界 (七日)

◇米 (單位錢)

	今日	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正三等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京城精白米 一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一斤價 在來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金 一匁	[illegible]	[illegible]
銀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	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	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生絲	[illegible]	[illegible]

米日爲替强保

【京城六日發聯合】六日의米爲替는 前日에比하면 賣二十七弗九十六仙으로一仙高 買二十七弗九十三仙으로二仙高

▲東京爲替(七日) 對米 賣 [illegible] 買 [illegible] 對英 賣 [illegible] 買 [illegible]

▲大阪爲替(七日) 對米 賣 [illegible] 買 [illegible] 對英 賣 [illegible] 買 [illegible]

鰮油粕運賃

總督府斡旋에 依하야 三月十五日에 商議키로된 十年度朝鮮鰮油粕運賃에對하야 一手輸送契約社인 朝鮮郵船에서는 目下 荷主側의 態度를 協議中이데 現行九年度運賃協定當時에比하야 現在에는傭船料船舶用炭其他一切의 運航費가 매우騰貴하고 그동안朝鮮米運賃을비롯한 各種運賃이모두引上되고 一般海運界도現在의好轉으로 硬化되어當分間 現狀을 持續될것이며 更改期를機會로二割程度의引上改定을要求키로內定하엿다고한다

商況 (七日)

株式 雙方傍觀 保合

前場軟保 昨日反落不勢인뒤를이어 今前場은雙方共히警戒不進하야 軟保裡細刻不振이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二十錢高인 百四十八圓丁、日産二十錢低인 百一圓十錢、鐘新十錢低인 百一圓十錢

後場堅保 後場은東新百四十八圓七十錢、日産百一圓六十錢에少狀後 大阪保合에伴하야 場面閑散이오 强保裡에大引

二次의上進은 軟派突込後?

日中提携난 원시솜작스럽게其體化結實이 잇슬것이아님으로시급 程度의 交涉만으로는 好感이一巡되것이 事實이오例의倫敦金塊未曾有의 新高價續出(今日入電)로 七磅九志四片으로 暴騰하니 …… [illegible]

好材料感應濟 今後形勢重視

代引方法變更 四月一日實施

實物前場取引

東京國債市場

今後日本對外爲替는 對弗基準으로變更?

磅貨崩落으로金融業者提唱

決濟場所를 藏相考慮中

對外貿易政策上

磅貨崩落으로 高橋藏相까지 考慮할重大問題임에止할뿐이오그實現은 困難하다하야爲替界의動向을 靜觀하는態度이라고한다。 磅이從來의安定性을失한것이 明白한以上 圓貨는磅과의 連結을버리고弗과連結할 必要가잇슬지모른다 하얏슴은別問題와갓거니와 東京市中金融業者一部에도 磅貨崩落을가지어對米基準說이擡頭키에至하얏는데 圓과磅과의連結은 米國의金輸出禁止와 同時에正金銀行이採用한寬大한爲替政策으로서爲替銀行의 見解로서는圓을弗로 連結할條件이具備치못한現狀이니 圓을 弗과連結할는 는 [illegible]

【東京電話聯合】高橋藏相은 『將來 磅貨의動搖에依하야서는日本의對外爲替의決濟를 以前과가티 弗로할必要가잇슬지도모른다』라는問題에觸한것은 자못注目되는터인데 이것은반드시 急速히基準을 變更할意味는아니오 現在와가튼國際的爲替動搖時代에 大藏省으로서는 日本의對外爲替의正常한地位를保全하고 不斷한注意를拂하고 萬全의策을講究하자는方針을披瀝한것으로觀測되다 그리고 이問題에關한 大藏當局의意向을綜合하면 金本位國崩壞의危機磅價動搖의事態에直面하야 對外貿易上英國과그植民地와가장密接한關係가잇는 日本으로서는 磅貨의貿易이輸出貿易全般에及할事情은 特히重大할뿐아니라其他重要貿易에도 關係가잇서서外貨建海運通郵等도 스타링크에依하야 決濟場所를 太半을占하는關係上 此等의手取金의急激한減少를招來케됨으로 重大한 今日大藏當局으로서 觀하는것은 爲替技術上의問題보다도 對外貿易政策上의 影響程度이오 今日과如히 國際爲替戰爭時代가 濃厚한時代에圓價를競爭上不利한地位에陷할必要가업다는點을 가장慎重히注意할것이라고 하는데잇다

豆類

總四百九十萬石

大豆三百八十萬石 前年보다一割六分三厘減少

◇……其他도全部實收減少

【七日總督府發表】昭和九年豆類實收高를 調査하면 作付反別은百八萬七千四百八十七町一反步로 前年에比하야七厘의減少、穗高는 各朝鮮에亘하야氣候不順 風水害 綠豆、落花生을除하고모두減收하엿다 卽이를 前年에比하면 大豆三百八十一萬二千三百七十七石(前年에 比하야 一割六分三厘減) 小豆八十七萬三千二百六十七石(同一割四分五厘減) 綠豆十三萬二千六百二十三石(同一分五厘增) 落花生四萬五千九百二十三石(同十一割六分九厘增) 栗豆一萬九千四百十六石(同三割七厘減) 豌豆二萬三千五百十九石(同二割六分二厘減) 其他豆二萬二千九百八十三石(同一割一分四厘減) 合計四百九十二萬九千八百三十二石(同一割三分六厘減)이엇다

▲收穫高 (單位石)

	粟	稗	黍	蜀黍	玉蜀黍	燕麥	蕎麥
京畿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作付反別 (單位町)

	大豆	小豆	綠豆	落花生	栗豆	豌豆	其他豆
京畿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收穫高 (單位石)

	大豆	小豆	綠豆	落花生	栗豆	豌豆	其他豆
京畿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淸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羅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尙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安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鏡北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比較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殘米發表期待 減少程度如何

目前의米界情勢는 이러타할만한 强材料가업는마큼 新規設定後二十條丁의反落을示하든市勢가反히 二十條丁의 低落을告하엿나그러나深入할餘地도 업슬모양으로當分保勢를免치못할것갓다 그런데 今月부터는 全國의殘存米量發表하게될으로그發表如何에依하야一場波瀾을 惹起할모양이다果然그 發表의數字가 如何할지 一般的으로觀測되는바에依하면 凶作의米인마큼昨年同期보다激減될것은明瞭이나그러나 今年은凶作의關係로代用食이多할뿐아니라 또節食을하여왓스며 從하야農家의 貯藏도 例年보다又一層 더하엿슴으로依然히在米의 減度가 적어서 比較的樂觀을 呈하게될지도

後場釘消

後場은二十八圓七十四錢에一丁高로始하얏다 後五節까지五本同價에釘消이고閑散하엿다

政府米拂下說 五六月頃實施?

朝取期米取組高

▲賣方 ▲買方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新規材料가乏하야場面은 極度閑散이엇다 ▲賣方 東側、朝鮮側、東京側 ▲買方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不動 [illegible]

仁川同調 [illegible]

釜山崩落 [illegible]

大邱軟弱 [illegible]

期米 無戰意로 釘着

前場續軟 [illegible]

市場六感

金融 七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貨入價 [illegible]

米穀 七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七日

●京城綿系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撫糟粕沖價 [illegible]

●海外豆粕 [illegible]

株式 七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實株 [illegible]

●京城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商品 七日

●大阪綿系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橫濱生系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